

금주의 기도

역사의 뒤편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섭리가 이뤄지고 있음을 깨닫고 오고 세대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사명을 다하는 모든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종교적 Nones 증가, 결혼 재정의, 백인우월주의... ChristianCentury, 필립 젠킨스 교수의 교회에 영향 주는 2010년대 주요 경향들 소개

“10년대(decades)”는 임의의 경계가 되더라도 역사를 조직하고 이해하는 데 유용한 구조를 제공한다. 어느 누구도 주요한 역사적 추세가 그러한 한계에 꼭 맞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20년대”, “60년대” 또는 “80년대”와 같은 용어는 특정 이미지와 기억을 불러일으키며 유용한 연대기를 연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앞으로 종교 역사가들은 2010년대의 역사를 쓸 때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 어떤 진전이 믿음의 풍경을 바꾸었는

가를 분류하고 정의한다. 특히 필립 젠킨스(Philip Jenkins, Baylor University) 교수는 지난 2010년대에 등장한 주요 경향들이 앞으로 어떻게 미국 사회와 기독교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라는 관점에서 정리해준다. 그에 따르면 2010년대에 확인된 주요 경향들은 앞으로 미국 사회에서 10년 동안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Major stories in American Christianity of the 2010s: How faith has been shaped by Obergefell, the Charleston murders, Me Too, and more).

“종교적 Nones의 증가”(2012)

학자들은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부유하고 교육이 향상됨에 따라 종교가 쇠퇴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이 분석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잘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세속화 추세의 징후는 특히,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강력해졌다.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넌스(Nones)’라는 제목의 2012년 연구에서 이 현상은 새롭게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퓨에 따르면 ‘넌스’는 2007년 15%에서 현재 26%로 계속 덩치가 커져서 복음주의 크리스천이나 미국의 가장 큰 종교단체인 로마가톨릭보다 약간 더 큰 그룹이 됐다. 특히 젊은 응답자 중 ‘넌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향후 몇 년 동안 더욱 더 젊은 층이 교회나 성당, 사원에서 빠져나갈 전망이다.

물론 통계기관의 데이터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넌스”는 대부분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가 아니라, 특히 “아무것도 없습니다(Nothing in particular)”라고 말하며, 신앙이란 이름으로 별이는 문화전쟁, 정치에 대한 혐오감 그리고 신앙의 포기나 아닌 제도적인 교회에 대한 포기로, 이들은 신앙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펼치고 거둬 마당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

프랜시스 교황 선출과 교황권(2013)

2013년 아르헨티나의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Jorge Mario Bergoglio)가

교황으로 선출됐다. 처음에는 그가 가톨릭 신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지구 남쪽에서 온 최초의 교황이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는 자본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가이며 교회가 낙태, 동성애, 피임 및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해 보다 목회적이고 덜 교의적인 접근 방식으로 묘사하는 것을 채택하도록 촉구했다.

미국 맥락에서 프랜시스의 교황권은 교회의 성직자 학대사건에서 실망하고 교인의 급격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의 희망과 두려움에 영감을 주었다. 프랜시스에 대한 카톨릭교회의 파

벌은 여전히 크게 나누어져 있다.

그의 개혁본능은 자유주의자들 사이에 희망을 불러 일으켰지만 다른 사람들은 프란치스코를 전통적인 정통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긴장은 미국 교회의 더 깊은 긴장을 반영한다.

오베르펠(Obergefell)과 결혼의 재정의(2015)

미국에서 40세 미만의 사람들은 동성결혼개념이 극도로 외설적인 것이나 온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않기에, 주류사회로 거의 자리 잡고 있다. (3면으로 계속)



성경적 목적으로 Z세대 만나라!

처이리더스.컴, 골든코넬신학교, E. 화이트 교수의 ‘목적’이 있는 2세대 접근법’ 보도

골든코넬 신학교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James Emery White) 교수는 그의 친구 릭 워렌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언급하며, 그전에 릭 워렌은 ‘목적’이 이끄는 교회를 썼다고 밝혔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에서 워렌은 “교회는 5종의 목적(예배, 사역, 전도, 교제, 제자 훈련)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흔히 교회를 이끌고 있는 전통, 돈, 프로그램, 유명인들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이러한 목적에 이끌려야 한다는 것이다.

화이트 교수는 “어떤 조직이 목적에 이끌려야 한다는 생각은 전략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 행성에서 가장 젊고 가장 많은 세대-Z세대의 주목을 끌 수 있는 것”이라며 이것에 대해 그는 책 ‘Z 세대를 만나라’를 썼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구가 진행될수록 화이트는 이것(목적’이 이끄는 것’)이 이 세대에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그 이해가 확장됐고 더욱 확신하게 됐다(What Purpose-Driven Means to Generation Z)고 처이리더스닷컴에서 밝혔다.

교인 수가 1,300만 명이 넘는 연 해외지역총회 감독들이 주관한 협회와 지역총회의 분리에 관한 절차를 상세히 밝힌 9페이지짜리 의정서를 뒷받침할 입법안은 2020년 5월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총회 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17명으로 구성된 이 중재 팀은

(2면으로 계속)



발행인 김철 김성국 목사



개척의 땀방울-조진모 목사



인터뷰 김로열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214) 228-9009 | 650 Shatto Pl., Los Angeles

성경암, 성경대, 그리고 자녀들의 상한 마음치유를 돕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한부모 가정 모임
 LA 비전교회 협력사역
 520 S. Lafayette Park Pl #200
 213-386-9191, 949-627-1452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chbook.org | 323-737-7699, 800-669-0451
 1027 J.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역 상담, 동성역사, 생가복합 주부 제작, 타월, 선불 주부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330-6080 | bibvestor@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응시자격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 Div 학위를 졸업 하였거나 2020년 6월 30일 이전(30일 포함) 예정자로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후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 분.

고시과목

a) 필기고시: (1) 교회사 (2) 조직신학 (3) 미국장로교회사 (4) 헌법 (이상 4과목)
 b) 제출고시: (1) 구약주해 (2) 신약주해 (3) 논문 (4) 설교원고 (이상 4편)

제출 고시 내용

(1) 구약주해: 요월 2:28-32
 (2) 신약주해: 베드로전서 2:1-10
 (3) 논문제목: 복음과 율법 관계를 개혁주의 관점에서 논하라
 (4) 설교본문: 학개 1:1-8
 ○ 설교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 할 것.
 ○ 고시 기간 중 설교실고시를 치름.
 (5) 제출 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부는 PDF 파일로 서에게 이메일 할 것.
 ○ 레터 (8-1/2" x 11") 용지를 사용 할 것.
 ○ 한글 11호 크기의 폰트 사용, 줄 간격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호 Double Space)
 ○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결장과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매 정도).
 ○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 할 것.
 ○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이름에 본인이름 및 과목 주제 이름을 사용 할 것.
 (예: 조성훈구약주해.pdf)
 ○ 파일이 너무 크면 나누어서 이메일로 보낼 것.

c) 면접고시

서류제출요령

a)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0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0년 3월31일 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c) 합격자 발표는 44회 총회기간(5월 12일-15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합격증서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a) 일자: 2020년 5월 5(화) - 6(수)
 b) 장소:
 동부: 퀸즈장로교회(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김성국 목사)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서부: 임마누엘장로교회(Emmanuel Presbyterian Church, 손인배 목사)
 4435 Fortran Dr. San Jose CA 95134

응시서류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20년 6월 30일 이전(30일 포함) 졸업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b) 신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c)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d)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e) 이력서(약력과 자세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 년도와 교회, 세례집행자) 1부
 f) 명함판 사진 2장
 g) 고시료: \$100 (USD) Pay to the order of - KAPC

참고사항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장의한 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월 5일-6일 총회고시장소) 중에 사용할 속소를 예약 할 것.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 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 당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 할 것.

제출처

고시부서기: Rev. Euihan Jang(장의한 목사)
 주 소: 6 Westminster Dr. Londonderry, NH 03053-3436 U.S.A.
 전 화: (603) 553-1991 이메일: euihan@hotmail.com

기타문의

a) 고시부 부장: 한재현 목사 (831) 920-7043 jhanrev@gmail.com
 b) 고시부 서기: 장의한 목사 (603) 553-1991 euihan@hotmail.com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양수철 목사
 서 기 : 한일철 목사
 고시부부장 : 한재현 목사
 고시부서기 : 장의한 목사

발행인 칼럼

그 해 겨울은 따듯했네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역사는 잊지 않을 것이다. 그 해 겨울을. 그 해 겨울은 다름 아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0년 겨울이다. 이처럼 참담한 겨울이 또 있었는가. 우한 폐렴의 전염병은 중국을 넘어온 지구를 초토화 시키고 있다. 수많은 자들이 죽어...

렵다. 그래서인가 마지막 환난에 대한 말씀을 하시던 예수님께서도 이런 환난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있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 해 겨울은 따듯했네." 수년 전 겨울, 우리 곁을 떠난 소설가 박완서씨의 작품이다. 영화로도 상영되었고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던 가슴 아픈 6.25전쟁 속의 어느 한 가정이야기, 아니 우리 모든 인생의 이야기이다. 피난 때에 자기만이라도 살아야겠다고 동생의 손을 슬며시 놓았던 여인 수지와 그에게 버려진 여동생 오목 사이에서 계속 펼쳐지는 이야기. 여유 있게 살게 된 언니는 훗날 찾게 된 동생으로 자기의 지난 삶이 드러나고 현재의 삶이 허물어질까 노심조사하면서 그 동생이 죽기까지 적당히 돕기도 하고 크게 괴롭히기도 하는 이중적 인간의 이야기. 작가는 아주 추운 겨울보다 더 매서운 이야기를 "그 해 겨울은 따듯했네"라는 역설적인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리게 한다.

민주주의 위기인가? 불만도 최고치!

BBC, '선진국내 민주주의 불만도 증가' 캠브리지대학 연구결과 보도

선진국 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지난 2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캠브리지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했다. BBC가 최근 보도했다. 연구진은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를 세계 각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조사한 자료를 분석했는데, 3500회의 설문문을 통해 4백만 명을 조사한 자료다.

영국과 미국은 특히 높은 수준의 불만을 보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로베르토 포아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는 불만에 찬 상태입니다"라고 말했다(Dissatisfaction with democracy 'at record high')고 BBC는 보도했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연구를 실시한 캠브리지대학교 미래민주주의센터는 1995년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을 추적했다. 2019년의 불만족 비율은 48%에서 58%로 상승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저희는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했으며 현재 불만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특히 선진국에서 그렇습니다." 포아 박사는 말했다.

전 세계 154개국을 다룬 이번 연구는 사람들에게 자국의 민주주의에 만족하는지 불만족하는지에 대해 설문한

편이었다. 그러나 최근 10여 년간 이는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더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증대한 것이다.

영국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은 1970년대부터 3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0년 직후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2005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 금융 위기를 비

은 47%였다. 2005년, 이 비율은 최저치인 33%로 떨어졌다. 2019년, 총선 직전에 실시된 설문에서 이 비율은 61%로 올랐다.

한편 미국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75%의 만족도를 보이는 등 높은 만족을 보여주다 그 이후부터 "극적이며 예상 밖의" 하락을 보여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냉소주의는 일부 국가에서 드문 일은 아닐 것이나 포아 박사는 이것이 "미국이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에 생긴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연구는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금융위기와 정치적 양극화, 불신의 증대와 함께 악화됐다고 한다.

그러나 일군의 유럽 국가들은 정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 네덜란드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그 어느



2005년 후 하락세...금융위기, 정치적 양극화, 불신증대 원인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 네덜란드는 되레 만족도 최상 민주주의 정당성 회복하려면 시대적 중대 위기 해결해야

것을 기반으로 했다. 일부 국가의 데이터는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는 20세기 마지막까지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유럽 동부와 중부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붕괴하고 서구 민주주의가 승기를 잡은 시대다. 전 세계적 감성은 민주주의의 발흥을 지지하는

연구는 불만의 증대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정치와 사회에 미친 영향과 2015년의 난민 위기로 인한 동요, 그리고 '외교정책의 실패'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구진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의 상실을 경고했으며 포퓰리즘의 발흥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상실의 원인이 아니라 징후라고 말했다.

못한 세계적 트렌드와 의원들의 세비 문제와 같은 국내적 논란으로 인한 것이었다. 연구진은 작년 12월의 총선 전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만족도가 더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이는 브렉시트를 둘러싼 정치적 교착 상태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1995년, 영국에서 민주주의에 불만을 가진 사람의 비율

때보다도 높다.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감이 줄고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제도가 경제위기부터 지구온난화의 위협 같은 우리 시대의 중대 위기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포아 박사는 말했다.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회복하려면 그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적 목적으로 세대 만나라

9-11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 기금문제를 다룬 책임자이자, 여러 복잡한 문제를 다룬 경험이 많은 변호사인 파인버그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 일을 무료로 도왔다. 몇 달에 걸친 회의 끝에 중재 팀은 총회에서 논의될 교단분리에 관한 여러 플랜의 차이를 중재하고, 성숙하게

교단분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

"우리 서명자들은 모든 사립에 대한 존엄과 평등 및 고결함과 존중의 마음을 담아, 교회의 모든 지체가 각자의 신학적 입장을 진실하게 유지하도록 허용하며, 각자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연합감리교회를 분리하고 구조를 재조정할 것을 제

안한다"라고 의정서 전문에 밝혔다.

이 문서에 서명한 중재 팀에는 차세대연합감리교회(UMCNext), 주류연합감리

교회(Mainstream UMC), 고백운동(Confession Movement), 굿뉴스(Good News),

(4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유원정.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성경도표
다니엘, 계시록(상,하)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다니엘계시록 DVD
70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영어책)구약, 신약, 700이레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공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종교적 Nones 증가, 결혼 재정의, 백인우월주의...

(1면에서 계속)

2010년대가 시작되면서 버락 오바마를 포함한 많은 자유주의 정치인들이 이 개념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것을 주저했다. 그러나 수년간의 주 정부와의 지리한 법정공방 끝에 동성결혼자들이 승리해 2015년 미국 대법원은 Obergefell v. Hodges 사건에서 동성결혼에 사면권을 제공했다.

Obergefell은 결혼식이 항상 주 핵심기능이었던 모든 미국 교회와 종교기관에 중요한 질문을 제기했다. 동성 결혼에 대해 도덕적으로 반대하는 기관은 민법이 종교적 실천과 신학에 얼마나 멀리 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왜 그들의 제도가 그들 자신에게 명백하고 불가피한 사회적 진보로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 너무 두려워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게 상황이 돼버렸다.

또 결혼문제는 보수적인 신자들이 LGBT의 권리를 침해하는 많은 법적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법원 재판들은 기업들이 동성결혼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 할 권리가 있는 근거와 방법을 시험하고 있다. 연 합감리교회에서 동성결혼 문제는 그 글로벌 교회의 지배 구조와 그 안에 있는 권위의 자리에 대한 전쟁의 핵심이다.

찰스톤 테러사건과 백인 우월주의의 문제 (2015)

동성애 문제와 마찬가지로 고질적인 인종과 인종 정의에 대한 관점의 변화속도는 놀랍다. 10년 전 남부에서만 아니라 전국에서 남부동맹국 깃발, 동상 및 기념 이름이 흔했다. 그 이후로 많은 부분이 제거되거나 제거 대상이었다. 2012년 백인 십대 조지

짐머만 (George Zimmerman)의 무죄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10대 트레이본 마틴(Trayvon Martin)의 총격사망사건과 2014년 미주리 주 퍼거슨(Ferguson)에서 마이클 브라운(Michael Brown)의 경찰총격사건으로, 판도가 아주 빠르게 바뀌었다. 이 사건들과 비슷한 대립으로 인해 "Black Lives Matter" 운동이 시작됐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은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톤에 있는 에마누엘 아프리카감리교성공회교회에서 9명의 교인들이 백



인우월주의자에 의해 대량 학살됐다는 것이다.

한때 정치적 급진에 국한됐던 인종적 불의에 대한 아이디어와 수사, 특히 미국의 삶, 과거와 현재의 만연한 현실로서 백인우월주의의 식별과 폐기 같은 문제들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러한 변화하는 인식은 많은 교회에서 백인들에게 주어졌던 특권, 노예제도의 유산, 배상과 같은 문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게 만들었다.

교회는 10년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백인주의라는 문제를 면밀히 조사하면서 미국 역사의 지속적인 재검토에 중심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기후변화와 Laudato si(2015)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

는 지난 25년 동안 계속됐으며 알 고어(Al Gore)의 2006년 영화 (An Inconvenient Truth)에 의해 대중의 관심이 받게 됐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적인 과학적 질문이 해결되고 합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거부자"로 해임될 수 있다는 광범위한 인식으로 관심의 범위와 강도가 엄청나게 증가했다.

기후문제가 정치적 논쟁의 중심으로 옮겨감에 따라 교회 내에서 행동주의가 고무됐다. 2015년 교황 프란치스코는 근시안적 물질주의에 대한 비난을 포함해 지구의 올바른 보살핌에 대

인물은 거의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당수의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를 얻어냈다. 일반적으로 81%인데, 이는 전체 백인 복음주의 인구의 비율이 아니라 실제로 투표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약간은 거품이 들어있다. 그러나 그 숫자는 일반적으로 반복되고 믿어졌다. 그리고 이 통계는 트럼프를 지지한 유권자들은 진정한 종교적 정서나 믿음보다는 인종적 충성심에 의해 주도됐다는 것을 암시하는 데 그 의미가 손상됐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 이후 그 해석은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했고, 정치와는 무관한 교회 내에서 세대 차이와 성 긴장을 강화시켰다. 그것은 거의 "Nones"의 증가에 기여했다.

젠더와 정체성 (2016)

10년 전 트랜스젠더 문제는 오늘날처럼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2016년 한해 동안 획기적인 사건으로 가시화된다. 바로 2016년 오바마 행정부의 교육부와 법무부가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변호할 것을 요구하는 "친애하는 동료" 서한을 보냈을 때 발생했다. 이 조치는 일반적으로 화장실과 학교 구내의 탈의실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을 제기시켰다.

트럼프와 복음주의자 (2016)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 정치사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종교 분야에서 그것은 정치적인 블록으로서 지난 40년 동안 국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복음주의의 기독교인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나타냈다.

언뜻 보기에 트럼프는 세 번에 걸친 결혼들과 성적 자유주의로 인해 복음주의자들에게 지지를 받아야 할

문제, 특히 매우 민감한 언어 문제 (남자로 불려야 할지 여자로 불려야 할지)와 관련된 종교기관에 많은 어려운 질문을 제기할 것이다. (6면으로 계속)

비록 트랜스젠더운동이 아직까지는 주류 지위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와 주장은 널리 퍼져 있으며, 성직자를 선출하거나 안수하는 것과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언어의 극도로 민감한 문제, 특히 매우 민감한 언어 문제 (남자로 불려야 할지)와 관련된 종교기관에 많은 어려운 질문을 제기할 것이다. (6면으로 계속)

젠더와 정체성 (2016)

10년 전 트랜스젠더 문제는 오늘날처럼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2016년 한해 동안 획기적인 사건으로 가시화된다. 바로 2016년 오바마 행정부의 교육부와 법무부가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변호할 것을 요구하는 "친애하는 동료" 서한을 보냈을 때 발생했다. 이 조치는 일반적으로 화장실과 학교 구내의 탈의실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을 제기시켰다.

비록 트랜스젠더운동이 아직까지는 주류 지위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와 주장은 널리 퍼져 있으며, 성직자를 선출하거나 안수하는 것과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언어의 극도로 민감한 문제, 특히 매우 민감한 언어 문제 (남자로 불려야 할지)와 관련된 종교기관에 많은 어려운 질문을 제기할 것이다. (6면으로 계속)



대통령의 탄핵보다 더 큰 상처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지난 1월 15일 목요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에서의 탄핵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존 로버트 연방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상원의원 100명이 배심원이 되어 탄핵재판을 진행됩니다. 지난해 12월 18일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후 거의 한 달 만에 상원에서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 12월 하원을 통과할 때 여당인 공화당에서는 단 한 사람도 찬성한 사람이 없었고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몇 이탤표가 나왔지만 230대 197로 탄핵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건은 전적으로 하원의 권한으로 하원에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결정되면 상원으로 넘겨져 탄핵재판을 한 후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은 앞으로 미국 역사에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여야를 떠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현재 하원은 과반수이상이 야당인 민주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원하면 언제든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는 전통을 남기게 됨으로써 전체 국민들이 선정한 대통령이 정치적인 당락에 의해 쫓겨날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대통령의 탄핵은 여당과 야당이 공조하여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에 하원에서 의결하고 곧 이어서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탄핵재판을 걸쳐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여당과 야당 사이에 공조와 합의 없이 다수당인 민주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이기에 향후 상당한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역사학자들이 경고합니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원하면 대통령까지도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탄핵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11일-14일 사이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민주, 공화, 무소속을 다 합친 자료를 보면 122:138로 탄핵을 반대하는 쪽이 높게 나옵니다. 국민들은 이 시점에서 자신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의회에서 탄핵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는 같은 당인 대통령의 탄핵이 부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탄핵의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또 다른 문제는 정치인과 그들의 언어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원에서 제기된 탄핵의 심각성은 대단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의 수사력을 동원하려는 대통령은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직에서 하야시켜야 할 만큼 사안이 엄중하고 긴급하다고 했습니다. '긴급'하다는 단어와 주장을 여러 번에 걸쳐 사용하며 그런 사건의 긴급성으로 인해 성탄절 이전에 탄핵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탄핵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후에도 마지막 심의와 결정을 위해 상원으로 넘겨지지 않은 채 거의 1달, 정확하게는 28일 동안 지체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지만 그 모든 이유를 가만하더라도 국민 앞에서 '탄핵의 긴급함'을 그토록 강조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말하던 때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모순된 행동에 정말 많은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인들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중성을 감탄하더라도 이번 경우는 얼마든지 그런 이중성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넘어 국민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선택에 맡기는 겸허하고 정직한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고 신뢰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작고하신 메케인 대통령 후보가 오바마 대통령 후보에게 대선에서 패한 후 메케인 후보는 국민들이 백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무척대고 후원하지 않고 피부색을 넘어 미국의 가치인 자유와 평등에 근거하여 흑인인 오바마 후보를 선택했다는 사실에 대해 미국의 가치가 지켜졌기에 자신은 너무 고맙고 감사하며 오바마 같은 후보와 함께 대선에서 경선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영광스러웠다는 뜻을 표현했습니다. 진실과 정직에 근거한 신뢰받는 정치인이 한층 더 그리워지는 시기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런 신실함만이 한 시대를 넘어 다음 시대를 바르게 세워갈 것입니다.

곧 탄핵에 대한 최종결정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탄핵은 역사 속으로 묻혀 질 것입니다. 그러나 탄핵이라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정치인들의 행적은 국민들에게 지도자로서의 남겨야 할 정직과 신뢰가 아닌 언어의 유희였다는 점이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한 국가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짐은 한 사회의 어른들의 무너짐을 의미합니다. 조금씩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는 지도자들의 삶과 정직함의 회복을 위해 더 많이 자주 기도의 골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아픈 나라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신앙인의 걸음을 걷기를 소망하며... thechoi82@yahoo.com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 과목: - 무통 위 내시경
- 무통 대장 내시경
- 조기 위암, 대장암 색도영 진단
- 비염, C형 및 각종 감염 진단/치료
- 임균/음성 감염, 권 조지경사, 지방관
- 각종 소화기 질환
- 최신 특수경시력 비디오 내시경 시설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지의학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안.내 - 치아임식(임플란트)
- 구강외과/틀니
- 보철치과
- 미용 성형치과
- 신장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재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히어로들(Heroes)

윈들러리스트(Schindler's List)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제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39년 가을, 나치의 잔인함과 유대인들의 비참한 실상을 목격한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윈들러(Oskar

Schindler)는 학살의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을 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나치의 우두머리 아몬 괴트(Amon Goeth)와 협상을 하기 위해 한 사람이 당신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만 결정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괴트가 느닷없이 윈들러의 말을 가로막고 그에게 되물었습니다. “아니, 아니야, 한 사람이 당신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지?” 그 질문이 윈들러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11,000여명의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윈들러’라고 불리는 스키하라 지우네는 사무라이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은 후 기도 중에 외국 대사가 되어 복음을 열방에 전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 다. 그가 리투아니아(Lithuania) 일본 총영사로 근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독일의 비밀경찰 게슈타포를 피해 온 유대인들이 일본 비자를 발급 받기위해 공판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

게 되었습니다.

스키하라는 본국에 학살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의 일본비자 발급을 세 번이나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행5:29)의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의 뜻을 거역하고 무려 6000명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스키하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는 본국으로 송환되어 외교관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가족들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생을 전구를 팔면서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의 결단과 희생을 인정한 사람들이 그를 ‘

열방의 의인’, ‘일본의 윈들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훈장과 야드 바셈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오스카 윈들러와 스키하라 지우네는 역사의 암흑기에 수많은 고귀한 생명을 구한 ‘히어로들(Heroes)입니다. 이들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부름을 받은 선교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몇몇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하는 고귀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올해 동안 우리 교회는 ‘111운동’(한 사람이 한달에 점심 한 끼 비용으로 선교사를 후원하는 운동)에 헌신함으로 더 많은 선교사를 후원하고 파송하는 교회가 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으로 보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선교적 마인드로 삽시다.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순종합시다. 기도와 물질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파송합시다. 이 땅에 ‘주의 나라 세워가는 교회’의 히어로들이 됩시다.

푸/른/초/장

장익한 목사

(뉴햄프셔장로교회)



1. 문제의 시작과 발단, 그리고 경과

연초부터 우한 때문에 화가 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발생지로 알려진 곳이 바로 우한에 있는 화난 시장이어서 기분이 참 묘합니다.

중앙일보 인터넷 2월 2일 오전 9시 35분(한국시간) 중국 상황입니다. 사망자 304명, 신규환자 2590명, 확진환자 1만 4000명.

2. 기독교인도 걸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6번 확진환자가 지난 26일(주일)에 명륜교회(박세덕 목사)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고 교회 식당에서 점심을 했다. 이후 확진환자로 밝혀져서 금요일에 예배당을 소독했다고 한다. 대한 예수교장로회 계신 측 명륜교회는 주일성수와 예배를 중시하는 고신에 뿌리를 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일(2/2)에 예배당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하여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마음이 많이 아팠다. 하지만 이를 빌미 삼아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가슴이 따듯한남자’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댓글에서 다음과 같이 조롱하였다.

아~~왜? 기도하면 다 나은 건데.. 신앙이 부족하구만.. 이

라고 썼고 이 글이 추천 순위 1위가 되었다.

3. 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는 이유

1)이 바이러스는 고통을 가져다줍니다. 중국의 병원과 대학 연구진이 분석한 확진환자 99명의 증상은 다음과 같았다. 발열(82), 기침(81), 호흡근관

선을 왔다 갔다 합니다. 숨이 차고, 숨을 못 쉬는 답답함과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하는 그 고통은 극심합니다.

4)따라서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하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바뀌어 극에 달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살고 싶습니다.

4.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생각과 시도, 대처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도를 합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 봉쇄와 격리, 그리고 예방 수칙을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많은 사람을 구했고, 과학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아무리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도 죽는 사람들은 여전히 나옵니다. 게다가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 못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바로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력합니다.

5.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계십니다

인간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을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미 주신 이것은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행동과 사고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6. 이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떠올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제일 먼저 떠올랐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과학이 하나님이나 종교보다 더 우월하다고 조롱합니다. 따라서 목사와 랍비는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시편 121:2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됩니까? 직접 전달하시거나 뭔가를 통해서 전달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2)두 번째 떠올랐던 사람은 송강호 박사입니다.

저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는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서 저에게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나를 소개할 때, 영적인 아버지

님은 한센병자를 돌보던 중 공산군에게 쫓긴 고문을 당하시고, 1950년 9월 29일에 총살, 순교하셨습니 다.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사랑의 원자탄. 본명이 손원준이신 손양원 목사님. 목사님은 전염병인 나병환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4)설교를 작성하는 중에 떠올랐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단 소속 군목님들.

고시부 서기로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KAPC 우리 교단 군목님들. 우리 교단 군목님들은 군인들과 함께 동거 동락한다고 합니다. 야전에서 같이 잠을 자고 전장에서 함께 땀을 흘리고 누빈다고 합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실천하고 계신 군목님들을 알게 된 것이 고시부 서기가 되어서 얻게 된 최고의 열매였습니다.

7. 하고픈 말이 있습니다

1)하나님은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셨는가?

2)하나님은 목사와 기독교인이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3)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4)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은 우리가 본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보는 것을 본다면,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시편 23: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나의 도움 어디서 올꼬?

시편 121편 1-8절

은, 제가 ‘도발하리라’라고 부르는 유발 하라리(무신론자, 유대인, 동성결혼)라는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입니다. 그는 이번 바이러스를 보면서 기독교를 또 한 번 비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무신론의 근거로 기독교인들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목사나 랍비를 찾아가지 않고 의사를 찾아가겠다고 하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아냥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랍비나 목사를 찾아가서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 병을 고치지 못하고,

라고 소개하고, 제가 그를 소개할 때는,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 실례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사태가 오래 간다면 분명 그 죽음의 골짜기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 들어갈 것입니다.

3)설교 준비하는 중에 마지막으로 떠올랐던 분은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애양원에서 한센병자들을 돌보던 중 1948년 10월 19일 여순반란사건 때, 목사님의 두 아들이 총살되었고,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하고 아들로 입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

성경적 목적으로 세대 만나라!

(2면에서 계속)

종교및민주주의 연구소(The Institute on Religion & Democracy), 웨슬리언연합회(Wesleyan Covenant Association), 행동을위한감리교연맹(Methodist Federation for Social Action), 화해사역네트워크(Reconciling Ministries Network), Affirmation, 연합감리교성소수목회자코커스(United Methodist Queer Clergy Caucus) 등의 대표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아프리카, 필리핀 등의 해외지역 감독들도 포함돼 있다. 서명자들은 이 제안을 지지하고 실행하기 위한

법안을 만드는 데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 의정서는 새로운 전통주의 감리교의 출현을 예상한다. 새 교단이 설립되면 향후 4년에 걸쳐 2,500만 달러를 받고, 기존 연합감리교회로부터 분리되는 잠재적인 새로운 감리교회를 위해

하는 감리교의 역사적 역할을 인정하면서, 인종주의에 의해 역사적으로 소외된 지역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역이 중단 없이 실행되도록 3,900만 달러를 할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 연합감리교회의 자산에 대한 추가 청구는 포기해야 한다.

지 여부를 투표하게 된다. 연합감리교회에 머무르기 원하는 교회는 투표할 필요가 없다.

교단을 떠나기로 한 교회도 현 자산과 부채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 모든 목회자와 평신도 직원의 연금 프로그램은 교단의 변경과 상관없이 그대로

완료될 때까지 중단된다.

이 의정서는 또한 연합감리교회 분리 후 특별총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다. 2020년 총회 직후 소집될 이 특별총회의 목표는 지역별 총회를 만들고, 전통주의 플랜과 성소수자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제거하

다.

“우리는 모두 교회의 종이며,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한 결정권자가 아님을 인정한다. 대신, 우리는 2020년 총회 대의원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더욱더 효과적이고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소망하며, 이 안전을 겸손히 제안한다.”

이 의정서의 서명자들은 이 문서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링크를 만들었다.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면 mediated_protocol@gmail.com으로 직접 문의할 수 있다.

2세대: 부정적인 것보다 사회가 만드는 긍정적 진전들에 집중

일자리 창출, 인종평등, 성희롱, 여성평등, 종교적 자유와 관용에 관심

서도 200만 달러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소수 인종을 향한 구조적 폭력과 착취 및 차별에 저항

의정서에 따라 각 연회와 각 교회 회중은 주어진 기간 안에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고 새로이 형성되는 감리교단에 가입할

유지된다. 그뿐만 아니라, 장정의 성소수자 또는 동성결혼에 관련한 모든 행정적, 사법적 절차와 교회 폐쇄조치는 분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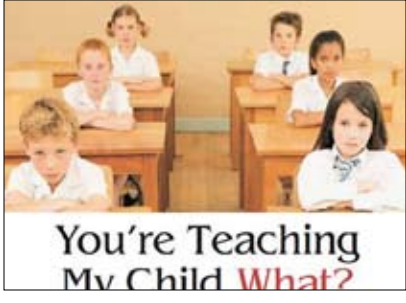
는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이다.

이 중재 팀을 대표해서 시에라리온의 존 암바수(John Yambasu) 감독은 이렇게 말했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CA 공립교 변태적 성교육에서 자녀 보호할 수 있는 법안 찾아내다!



캘리포니아 주는 캘리포니아주 법(SB48과 AB329)으로 인해 지극히 변태적인 보건 및 성교육(Health Sex Ed.)을 유치원생부터 12학년까지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사악한 것은 그런 성교육이 학부모들의 허락도 없이 학부모 몰래 행해질 뿐 아니라 그런 수업으로부터 내 자녀를 뺄 수 있는 학부모의 권리까지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빼앗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선한 법 SB673으로 학부모의 권리를 되찾고자 10만개가 넘게 편지, 이메일, 전화들이 교육청에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 교육부 공청회 때는 SB673을 지지하러 나왔던 150-200여명의 학부모들에 비해, 반대하러 나왔던 사람들은 10명도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의원들 민주당 소속 5명 모두는 학부모들의 권리를 되돌려주는 것을 무참히 거절했습니다.

반대하러 나왔던 이들은 학부모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문란한 성교육 교과서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ACLU, Planned Parenthood, 여성 권리 운동단체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Teacher's Association과 PTA를 대표하는 사람들도 "학부모의 권리"를 반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학교가 학부모보다 성교육을 더 잘 가르치기에 학교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자리에 모인 모든 학부모들이 그들의 황당한 거짓말들과 비상식적인 이유에 비난을 보냈습니다.

SB673을 지지해준 유일한 2명의 상원의원들(공화당 소속)은 공청회방을 가득채운 실망스러워하는 학부모들에게 말하길, "캘리포니아 법정은 당신들의 편이 안될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녀들의 교육에 더욱더 적극 학교와 학군을 통해 참여하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진심어린 권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과 같은 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마태복음 7:7의 약속의 말씀처럼 캘리포니아 교육에 대한 모든 법안들을 저희와 함께 동역하는 미국단체들과 함께 오랜 시간 검토한 결과 기적과 같은 교육 코드(조례)를 발견하게 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코드는 2004년에 이미 주정부법으로 상정되었던 California Education Code로서 오바마 시절부터 더 강력한 정치적 힘을 얻어 권력을 행사하며, 우리 자녀들을 sexualize 시키려는 반기독교 단체인 ACLU와 Planned Parenthood가 당시 Shirley Weber(민주당)의원과 모든 민주당 의원들의 지



지를 받고 통과시켰던 SB48과 AB329에 있는 Education Code들을 뛰어넘는 법안 코드로서 그 효력은 매우 크고 학부모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새롭게 발견한 교육 코드에 대한 간결한 설명 중 아래와 같이 요점만 나눕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육코드(California Education Code)를 나눕니다. California Education Code Section

51240(a) If any part of a school's instruction in health conflicts with the religious training and beliefs of a parent or guardian of a pupil, the pupil, upon written request of the parent or guardian, shall be excused from the part of the instruction that conflicts with the religious training and beliefs.

(b)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religious training and beliefs" includes personal moral convictions."

위에 적힌 7가지 교육 코드에 따르면:

1. 학생들이 자신의 신앙/도덕관과 맞지 않는 교육으로부터 excuse 할 수 있다고 정확히 적혀 있으며 2. 학부모들은 미리 자녀들이 변태적인 성교육이나 비도덕적인 교육으로부터 빼달라고 하는 신청을 함으로써 자녀들을 "excuse" 혹은, Opt-out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2.미연방정부 교육코드: Protection of Pupil Rights Amendment(20 U.S. Code § 1232h)는 특별히 캘리포니아, 뉴욕, 오리건, 시카고, 하와이 등 대도시에서 있는 학교들이 자녀들에게 설문조사(Survey)를 할 때, 정체성을 교묘히 왜곡되게 말하도록 유도하는 부적절한 질문들에 응하지 않아도 되며, 이런 설문조사로부터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뺄 수 있다(Opt Out)고 알려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설문조사 내용들은 저희 홈페이지(Tvnext.org) 링크로 가세요.

학부모들이 즉시 시행할 일 학부모님들께 Tvnext에서 제공하는 Opt Out form과 편지는 미국전역에서 잘 알려진 기독교법률소에서 만든 것입니다.

1.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와 학군에 저희 홈페이지에 올린 Opt Out form을 작성한 후 저희가 올린 legal letter(ADF)도 함께 어태치(attach) 하셔서 학군과 학교에 속히 보내세요.

2. 확인하고 상기(Remind) 시키기 - 학교와 학군에 이메일을 보내셔서 그들이 Opt Out legal form/letter 받게 될 것을 상기시켜 주세요. 편지에 이미 자세히 적혀있기에 더 이상의 글을 이메일에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다음세대 가치관 정립&보호) 홈페이지 또는 Facebook을 통해 업데이트 받으시기 바랍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우리 지역의 어느 목사님은 인기가 좋아 사람들이 성공적인 목회자라고 부릅니다. 사실 저는 개척교회를 나가는데 담임목사님은 진실하시고 성경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교회는 작습니다. 그분은 실패한 목회자인가요? 아니라고 보는데 과연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애나하임에서 K7

A: 여기에 대한 적절한 예화가 있습니다. 서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어떤 목회자 모임에서 세미나를 하시면서 질문을 받았습다. "목사님, 목회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때 목사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한동안 대답을 못하시다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아직 목회에 성공했다고 생각해보는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 봐야 알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성공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일입니다. 성공이라는 말은 상당히 세속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신령한 일인 목회에는 첫째, 성공이 아니라 승리(Not Success But victory)가 있을 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이 7교회는 상징적으로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7가지 유형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칭찬과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으로 볼 때 성공적인 교회라 할 수 있는 에베소교회, 사데교회, 라오디게아교회는 사람도 많이 모이고 재정도 좋고 건물도 웅장하여 분명히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성공한 교회였는데 주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았습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난하고 작은 교회였던 서머니교회, 빌라델비아교회는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다. 그렇다고 작은 교회가 이상적이고 크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대형교회가 되는 데는 그만큼 목회자와 성도들의 많은 희생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의 보는 관점(Perspect)과 사람이 보는 관점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임

목회기준은 성공이 아닌 '승리' 이며 '섬김'

니다. 주님이 하시는 평가(Evaluation)와 사람의 평가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 제일 마지막에 항상 권고하기를 항상 "이기는 자에게는(to the one who is victorious)"라는 표현을 썼습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에게는 성공이 아닌 승리하는 목회가 있을 뿐입니다. 교회사이즈가 커지면 작던 주님이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목회를 하여야 합니다.

둘째, 목회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Not Success but Service)이 있을 뿐입니다. 약 3년 전에 교인들과 함께 가서 본 한국의 의료선교사 서서평의 기록영화가 기억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았습다. 그 기록영화를 잊혀지지 않고 목회하는 제 정신 세계에 아직도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저 자신이 매우 부끄러웠습다. 서서평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버림받아 외롭게 자란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의술과 성경을 배워 미국장로교 의료선교사로 32살에 파송됩니다. 그때가 지금부터 약100여 년 전, 가난하고 억압받던 조선 땅에 찾아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며, 몸이 으스러지도록 헌신하다 영양실조로 죽은 이름도 없는 파란 눈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선교부에서 주는 선교비를 쪼개어 받은 가난한 자들의 구제금으로 쓰고 고아 14명을 자기 자녀를 삼았고, 자기 집에 오갈 곳 없는 과부 38명을 같이 살게 하면서 같이 지냈습다. 사람들은 그녀를 작은 예수라고 불렀습다. 병자들을 돌보고 틈틈이 나면 여인들을 모아 성경을 가르치고 그녀는 삶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자신은 폐병에 걸리고 잘 먹지 못해 영양실조로 결국은 54살에 죽었습니다. 그녀의 죄수명이 나중에 발견되었는데 그녀의 책상에 "Not success but service"(성공이 아니라 섬김)라고 적혀 있었습다.

담임목사 청빙

오하이오 에슈타블라지역에 소재한 에쉬타블라 한인교회에서 하나님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실 담임목사님을 모십니다.

지원자격

- 1. 정규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으신 분으로 목회 경험이 있는자
- 2. 미국거주에 결격사유가 없으신분
- 3. 한국어와 영어 소통이 가능하신 분

제출 서류

- 1. 이력서
- 2. 본인 및 가족소개서(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포함)
- 3. 최종학위 증명서 및 목사 안수 증명서 각 1부 (사본)
- 4. 최근 6개월 이내의 설교 동영상 2회분
- 5. 추천인(목회자only) 2명이상

제출처

이메일: sddkim206@gmail.com
연락처: (440)822-9390
우편메일: 2300 Austinburg Rd., Ashtabula, OH 44004

제출마감: 2020년 3월 15일

기타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에쉬타블라 한인교회
2300 Austinburg Rd., Ashtabula, OH 44004
koreanashtabula@gmail.com

전 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나릅니다

전 미주 및 해외한인 교회 주소록 수록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언론,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신규 변경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① 교회(기관) 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 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 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
⑧ Web Add.	http://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 내용을 편지나 또는 E-mail로 보내주시시오 ④ 번은 해당사항이○표시를 하세요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중국의 뿌이(Puyi)

뿌이(뿌예이)는 중국의 윈난성 귀즈오(Yunnan-Guizhou) 고원에서 산다. 그곳은 남쪽에서 약 400미터 솟아 올라 북쪽으로 1000미터 이상 높이에 이른다. 산으로 둘러싸인 험하고 동떨어진 이 지역은 심하게 표현하자면 평평한 지형이 거의 3평방피트가 안 될 정도다. 기후는 매우 습하여 평균 16도 화씨로 61도 정도의 온도를 보이며 연간 강수량은 평균 1-1.4m 또는 3-4.6인



치 정도다. 귀즈오(Guizhou) 지역에서 사는 뿌이족 사람들은 시노 티벳(Sino-Tibetan) 계열의 좡둥(Zhuang-Dong) 족에 속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비록 뿌이가 사용하는 문자 체계가 있지만 문서용으로는 한자를 사용하곤 한다. 마을들은 주요 도로에서 떨어져 있는 특징이 있고 돌로 이루어진 벽이나 대나무 울타리로 둘러 쌓여있다. 제일 큰 마을은 200가구 정도의 규모이며 축제기간에 두들기는 청동 북이 많은 마을에서 발견됐는데, 그것들은 전체마을의 공동 소유다.

삶의 모습

뿌이는 매우 비옥한 땅을 일구며 쌀, 밀, 옥수수, 기장, 사탕수수, 메밀, 감자, 콩 등을 재배해 자급자족한다. 그들은 또한 면화, 모시, 담뱃잎, 사탕수수, 차, 커피, 바나나, 비단, 삼마, 코코아 등 상업성 작물도 재배하며, 납결포(Batik), 자수, 짐구용 매트, 대나무 모자 등을 만들어 팔기도 한다. 숲에서는 소나무와 전나무 판재를 얻는다. 뿌이족은 여러 씨족들이 모여 이룬 마을에서 산다. 이 마을들은 강기슭에 위치해있고 집들은 이층으로 지어져 바닥층은 가축을 기르거나 방갈로(목조단층집)에서 산다. 그들은 본래 대부분 농민들이지만 몇몇은 큰 마을이나 도시에서 무역 일에 종사하고 있다. 여성들은 지위가 매우 높고 들에 나가 일을 하며 남편들이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

뿌이족은 예술과 공예에 다재다능해 전래우화나, 민속음악, 속담, 시적인 문학작품도 풍부하다. 뿌이족의 레크리에이션은 흥겹인형극인데, 특히 그들은 아름다운 색상의 직물을 생산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결혼식에서 참석자들은 "연꽃가방"을 답례품으로 받는다. 이 가방들은 다양한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베개 모양으로 재봉되었다. 참가자들은 처음에는 이 가방들을 임의로 공중에 막 던지지만, 나중에는 자기의 마음에 드는 데이터 파트너를 골라서 상대를 향해 던진다.

뿌이족들은 물을 길기 위해 한참을 걸어야 하며 건기에는 5-6시간 걸리기도 한다. 최근 뿌이족이 사는 두 마을에서 땅속에 물탱크를 설치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지만 이 프로젝트가 완성될 때까지 그에 따

른 비위생적인 환경들은 장티푸스 같은 장염을 유발할 것이다.

뿌이족의 집들은 대체로 그 구조나 기술이 아주 열악하다. 또 좋은 집이라 하더라도 지붕들이 약해서 종종 이는 바람과 강한 폭풍은 거의 막아내지 못한다.

신앙

뿌이족에게는 몇 개의 종교가 있는데 일부는 크리스천이며 일부는 도교를 믿지만 대다수는 조상을 섬기는 다신교(Polytheistic Animists)를 믿는다. 음력으로 여섯 번째 달의 6일에 그들은 모든 뿌이족의 첫 조상인 "판구(Pan Gu)"를 섬기며 예배한다. 그들은 그(판구)가 풍년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는다. 음력으로 세 번째 달의 제 3일에는 함께 모여 산신의 생일을 축하하며 찬

양의 노래를 부른다. 조상을 모시는 제단은 집마다 있지만 음식을 차려놓은 차례상은 나무 아래나 마을 밖 작은 사당에 놓여진다.

필요로 하는 것들

그들에게는 뿌이어로 된 공영방송이나 기독교 라디오방송이 없다. 족복음인 마태복음이 지역어인 만다린 방언으로 번역되었지만 뿌이어 성경은 없다.

대부분의 뿌이족은 몇 개의 신을 섬기면서, 그에 대한 신앙심도 깊어서 진리의 신은 오직 하나라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진리의 개념이 뿌이족 안에 있어온, 수세기에 걸쳐 인간의 존재는 우주에서 매우 작은 미미한 존재라고 가르치는 도교의 신앙을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복음의전함, 아프리카 출항 닷 올려

복음의전함이 세계 주요 도시에서 광고로 복음을 전해 온 '6대주 광고선교 캠페인'의 마지막 대륙인 아프리카에서 미션을 이어간다.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오는 2월 17일부터 한 달간 요하네스버그와 프리토리아에서 진행할 6차 캠페인 준비 과정이 소개됐다.



복음의전함 측은 남아공을 선정 한 이유에 대해 "기독교 인구가 80%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이단 종파가 전체 기독교인의 41%를 차지하고 영혼 치유, 병의 등 토속 신앙이 스며들어 있어 진정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인종차별정책으로 인한 상처가 남아있고 강력 범죄가 빈번해 위로와 치유가 절실한 곳"이라고 덧붙였다.

5차 캠페인에서 문구로 활용됐던 '괜찮아! 예수님과 함께라면'(It's Okay! with Jesus)은 '괜찮아! 오직 예수님과 함께라면'(It's Okay! With only Jesus)으로 바뀌었다. 기독교 문화권 안에서도 진정한 복음이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캠페인 기간 요하네스버그와 프리토리아를 잇는 'N1 고속도로' 위에는 가로 20m 세로 5m의 대형 야립광고판에 복음광고가 게재된다. 하루 평균 22만1000여명(월평균 663만여명)이 오가는 길목이다. 유동 인구가 가장 높은 시내 센터포인트 지역에도 가로 5m 세로 7.5m 크기의 빌보드 광고판이 세워질 예정이다.

광고선교 캠페인이 진행되는 지역마다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교회 성도 간 연합'도 추진된다. 21일 오후엔 요하네스버그 지역의 현지 교회와 한인 교회 성도들이 로즈뱅크유니온교회에 모여 연합집회(기도회)를 열고 이튿날에는 센터포인트 광장에 집결해 연합거리 전도를 펼친다. 짐바브웨 잠비아 보츠와나 등 아프리카 선교사 100여명도 각자 사역지에서 22일 동시에 거리전도를 진행한다.

영어와 줄루어로 제작 배포된 15만장의 전도지에는 가수 박지현, 배우 주아름과 함께 최초로 현지인이 광고모델로 나선다. 고정민 이사

장은 "프리토리아대 교수이자 목회자로 남아공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샘 도가(Sam Ndoga) 목사가 모델로 참여한다"고 전했다.

NYT "신종 코로나, 감염자 10만명 추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사태가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병)으로 번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신종 코로나 감염자 수는 현재 집계된 수치보다 훨씬 많은 10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추정치도 나왔다. 신종 코로나는 전염성 측면에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를 훨씬 뛰어넘어 독감에 필적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치사율은 가능조차 어려운 상태다.



뉴욕타임스(NYT)는 신종 코로나가 2개 이상 대륙에서 확산하는 팬데믹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고 2일(현지시간) 감염병 전문가들을 인용해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 등 여러 나라가 강력한 여행금지 및 방역 조치를 취했지만 신종 코로나의 세계적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가 얼마나 치명적일지를 두고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인간 간 전염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NIH)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장은 "(신종 코로나) 전염성이 매우 높다"며 "팬데믹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토머스 프리드먼 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P) 소장도 "바이러스를 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 얼마나 멀리 퍼질지,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는 단 3주 동안 확진자가 50만 남짓에서 1만7000명 이상으로 폭증했으며 사망자는 360명을 넘어섰다. 2003년 7월 종식 선언까지 약 9개월 동안 확진자가 8098명 나왔던 사스, 2012년 처음 발견된 이래 전 세계에서 2500여명을 감염시킨 메르스와 비교하면 전염 속도가 폭발적으로 빠르다. NYT는 "다양한 역학 분석 모델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의 실제 감

염자 수는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사스의 치사율은 10% 정도로 집계됐으며 메르스는 대략 감염자 3명 중 1명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파악됐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은 치사율이 2.5% 남짓에 불과했지만 감염자 수가 워낙 많았고 의료 수준도 낙후됐던 탓에 사망자 수는 무려 2000만-5000만명으로 추정된다. 2009년 신종플루 역시 약 28만5000명을 사망케 했지만 치사율은 0.02%에 불과하다.

현재 확인된 신종 코로나의 치사율은 2% 정도다. 더욱 다양한 시험이 이뤄지고 증상이 미약한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치사율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의 빠른 전염성을 감안하면 치사율이 낮더라도 사망자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피터 피오트 영국 런던위생·열대의학 대학원 원장은 "신종 코로나의 전염 양상이 사스보다 신종플루와 더욱 유사해 우려스럽다"며 "치사율이 단 1%라도 100만명 중 1만명이 사망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탄핵 '올가미' 벗어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서 사실상 벗어났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미국 상원 탄핵심리 증언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의 폭탄 발언이라는 마지막 걸림돌을 제거했다.



탄핵 절차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미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지를 투표를 5일 오후 4시에 실시하는데 합의했다. 상원은 여당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에 대해 거센 공격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탄핵 소추를 불러온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올해 미국 대선 국면에서 여전히 화약고로 작용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탄핵 절차가 끝나더라도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구심은 상원에서 선거운동 공간으로 무대를 옮겨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미 상원은 지난 31일 탄핵 심리에 볼턴을 비롯한 새로운 증인들과 추가 증거를 채택할지 여부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투표 결과는 반대 51표, 찬성 49표였다. 새로운 증인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된 것이다. 볼턴의 입을 통해 대

역전을 노리던 민주당의 전략은 물거품이 됐다. WP는 "이번 상원 탄핵 심리는 새로운 증인이 없는 첫 사례가 됐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이탈리아를 최소화하며 집안 단속에 성공했다. 전체 100석인 미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그리고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2석으로 구성돼 있다.

볼턴 증언을 위해선 최소 4표의 공화당 반란표가 필요했지만, 이탈리아가 2표에 그친 것이다. 공화당 소속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양숙인 및 롬니 상원의원과 수전 폴린스 상원의원이 민주당 입장에 동조해 찬성표를 던졌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트럼프 탄핵 여부를 결정할 표결이 5일 이뤄짐에 따라 상원 탄핵 심리도 정리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9월 24일 민주당의 전격적인 탄핵 절차 개시 선언으로 불붙었던 트럼프 탄핵 정국은 4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상원은 3일 탄핵심리 절차를 재개해 탄핵소추 위원단과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의 최종 진술이 각각 진행된다. 미 상원의원들은 3-5일 최종 투표에 앞서 소속 정당에 따라 탄핵 정당성 또는 부당성을 강조하는 릴레이 연설을 실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의회에서 올해 국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국정연설의 주제는 '위대한 미국의 복귀'"라고 말했다.

당초 공화당은 상원에서 증인 채택안 표결 부결 직후 탄핵소추안 표결까지 모두 끝낼 것을 추진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공화당 일각에서 속고 절차 없이 표결에 임하는 데 대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탄핵 사슬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국정연설을 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어그러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적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앞에서 개선장군처럼 연설할 기회를 놓친 것이다.

민주당은 3일 열릴 아이오와 코커스 이전에 탄핵 표결이 실시되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 유일한 위안거리다. 아이오와 코커스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출발점이다. 트럼프 탄핵 부결 뉴스가 뒤덮기 전에 아이오와 코커스를 치러낼 수 있게 된 것이다.

탄핵 부결이 미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엇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해 면죄부를 받으면서 재선 가도에 속도가 붙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대선 기간 내내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탄핵 부결은 민주당 지지층이 더욱 결집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종교적 Nones 증가, 결혼 재정의, 백인우월주의...

(3면에서 계속) 따라서 예배와 성경번역에서 이 문화 혁명은 이제 시작이다.

"Me Too"와 여성의 리더십(2017)

2016년 대통령 경연에서 힐러리 클린턴의 패배는 괴롭힘, 학대, 과소표현 및 차별문제에 초점을 맞춘 이미 활성화 된 페미니스트 운동에 기여했다. 2017년 할리우드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 성희롱과 폭행의 폭로가 훨씬 더 광범위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어떤 경우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스캔들의 몸통이었고 그 시작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Church Too" 운동은 "Me Too" 운동에 참여해 여성들이 종교기관에서 육설

을 불러일으키는 남성들의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고발하고 도전하도록 촉구했다.

이 운동은 종교적 삶의 지속적인 거부장제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항의에 대한 부정행위의 특정 주장을 훨씬 넘어섰다. 특히 복음주의 교회는 보완적인 성 역할과 여성의 남성 권위에 대한 복종에 관한 일반적인 전통신학에 새로운 도전을 이제 마주하게 됐다.

신학교의 위기(2017)

미국 신학교들은 수십 년 동안 재정적 압박에 직면해왔으며 2010년 동안 감소는 급격하게 진행돼 어떤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Andover Newton Theological School이 보스턴 밖으로 역사적인 캠퍼스를 판매하기로 한 결정과 2017년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에서 성공회신학교를 폐쇄한 것이다.

EDS는 뉴욕의 Union Theological School과 병합했으며 Andover Newton은 Yale Divinity School로 흡수되는 형태를 취했다.

폐교와 합병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학생 수를 반영하고 전임 성직자를 고용할 수 있는 교회 수의 급격한 감소와 일치했다. 그들은 또한 미국의 더 큰 세속적 표류를 반영했다. 이 위기에 직면한 주류교회는 혼자서 아니었다. 일부 가톨릭신학교는 최근 지구 남부에서 온 이민자들을 널리 끌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살아남았다.

출산율과 신앙(2019)

종교적 신앙과 실천 수준은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생식력(일반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자녀수)에 있다. 이러한 변화를 형성하는 요소들의 정확한 순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이래 유럽 사회는 인

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출산율로 결정적으로 이동해왔으며 거의 모든 경우에 세속화가 뒤따랐다. 세계의 다른 지역도 비슷한 패턴을 따랐다.

역사적으로 높은 출산율과 강한 수준의 종교적 믿음을 가진 미국인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패턴에서 제외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출산율은 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졌으며 스칸디나비아보다 낮은 수치에 이르렀다.

결론으로, 지난 한 세기 10년간을 정리하고 그 주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은 역사학자의 의무이자 권이다. 그러나 이를 교회공동체와 신앙에 반영해 복음을 증거하며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과정은 바로 교회의 뉘앙스, 미션이다!

종교개혁 500주년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전 세계의 개신교회가 들쭉거렸다. 교회 안과 밖에서 각종 세미나와 집회가 이어졌다. 역사 신학자들의 논문이 줄줄이 발표되었다. 종교 개혁지를 직접 방문하는 행사도 많았다. 주로 개혁운동의 앞장섰던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의 생애와 사역을 돌아보는 일에 집중되었지만 16세기, 17세기 종교 개혁자들의 업적을 새롭게 조명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만한 한 해였다.

교회가 '종교개혁'에 대한 열망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한 해였다. 개혁을 갈망하던 종교 개혁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였다. 이 시대의 교회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개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이에 대한 답을 얻는 일에 집중하였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마감되면서 교회는 몇 가지 보배스러운 열매를 얻을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었다. 비판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안목이 생겼다는 것이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려는 태도가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게 되었다. 또한 개혁가들로부터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배우려는 자세가 생겨났다. 후대교회는 과거 교회가 경험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사실 교회역사 자체의 교훈은 항상 주어져 있었다. 단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을 뿐이었다.

그 결과, 교회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며 개혁에 대한 열망의 회복과 함께 그 구체적인 방법 역시 공유하게 되었다. 교회의 개혁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님을 인정하게 되었다. 개혁이 필요한 변화를 위해 대처할 방법을 얻게 되었기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지니게 된 것이다.

과거를 기념

'종교개혁 500주년'으로부터 몇 년이 지났다. 과연 그 당시 교회가 지녔던 개혁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지, 또한 현재 구체적인 방법이 실천되고 있는지 진솔하게 살펴보자. 과거 종교개혁이 단번에 이뤄진 것이 아니고 소수에 의해 작게 시작되었던 것처럼, 현재에도 교회에 개혁에 대한 열망을 지닌 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개혁작업을 특수한 사명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미 개혁된 교회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는 선배들의 교훈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한다.

이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자신들을 좀 더 냉철한 태도로 돌아봐야 할 것이다. 한때 개혁의 가능성을 직시하며 그토록 커다란 기대감에 부풀었던 교회가 지금은 매우 피곤해져 있다. 마치 고된 경기를 치른 뒤 지친 운동선수처럼 의욕을 잃은 교회의 모습을 주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기대가 컸기에 실망 역시 큰 것이 아니냐는 말이 아니다. 개혁에 대한 열망 자체는 언제나 요구되기 때문이

같은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도리어 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전보다 더욱 못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엄격히 말하자면 2007년은 한 해 동안 많은 행사와 노력은 과거를 기념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마쳤다는 것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나오면서 교회가 경험한 것도 이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종교개혁

'종교개혁'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가

1000년간 지속되었던 중세교회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개신교를 주도한 선배들이 생명을 내걸고 그들을 향해 개혁을 외치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깨려는 것과 같은 무모한 일이었음을 강조한다. 막강한 힘을 지닌 로마가톨릭교회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결국 개신교의 승리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종교개혁주일을 맞아 과거를 기념하면서, 우리는 개신교가 얼마나 훌륭한 뿌리를 지니고 있는지 확인한다.

마치질 성격의 것이 아니다. 반성이나 각성을 동반하지만, 그 열매는 반드시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성경적인 개혁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전제한다고 가르친다. 개혁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다.

종교개혁자들의 관심은 로마 가톨릭 교회 아래서 신앙을 영위하던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맞춰져 있었다. 그들은 오직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 복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쳤다.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그들의 신학과 전례에 속박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개혁자들은 요시아의 종교개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셔야 할 자리에 자리 잡은 우상을 타파하는 일에 매진하였다.

초기 종교개혁자들은 로마가톨릭 교회를 향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도록 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지적하면서 개혁을 요구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개혁자들은 구교를 향해 지속적으로 개혁을 요구하면서도 기본적인 관심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개혁정신을 따라 구교의 전형적 전통을 벗어난 성도들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구체적인 개혁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자세히 안내하며 지도하는데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에게는 이미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의 지속적인 삶의 변화 자체가 개혁의 대상이었다.

개혁자들에게 '종교개혁' 또는 '신앙개혁'이란 매일 지속되는 삶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일이었다. 로마가톨릭교회의 오류를 지적하고 개혁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던 초기 종교개혁자들의 영적 유산을 기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들의 땀방울이 있었기에 지금의 개신교가 시작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신앙인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개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성경에 입각하여 살아 가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며 땀방울을 흘렸던 개혁자들의 노고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성도는 매일 개혁의 땀방울을 흘려야 한다. 현대교회와 성도가 정결해지고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연약관계를 알려주는 성경을 기준 삼는 것이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성경적 개혁을 반드시 자기반성을 동반한다. 진정한 개혁의 증거는 하나님과 관계를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깊이 뒤어치고 회개하는 성령이 허락하시는 마음과 눈물이다.

covenantcho@yahoo.com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2)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하나님이 중심 되는 성경적 개혁은 반드시 자기반성 동반 종교개혁 행사로 공감대 형성은 긍정적이나 삶이 따라야

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념하는 일에 지나치게 익숙해 있다. 1년에 한번 결혼일이나 교회설립주일이 다가오며 이 날을 기념한다. 기념이란, 세월 속을 지나면서 반드시 마음에 간직해야 할 중요한 일이나 인물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기념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지난 2007년, 한국교회는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을 기념하며 한 해 동안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였다. 그 중심에는, 과거 한국교회의 신앙적 뿌리를 견고하게 하였던 부흥운동을 재현하고자하는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미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2007년을 맞은 한국교회였다.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모두 변화를 기대하며,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을 바라보는 소망 어린 눈으로 교회의 상황을 지켜보았다.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떠한지 잘 알고 있다. 누군가로부터 전달 받은 정보 때문이 아니다. 현실 속에서 분명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와

장 먼저 16세기 종교개혁을 생각나게 한다. 세계교회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며,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제시하며 시작한 개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짐한다.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또는 성탄절과는 동등하지 않아도 이 주일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통해 과거 역사를 기념하려는 교회들도 제법 많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하나의 기념거리로 생각할 수 없다. 과거 교회가 경험한 중요한 일들 중 후대 교회가 얻을 수 있는 역사적 의미와 교훈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16세기와 17세기에 교회가 경험한 개혁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

무엇보다 대부분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지나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모양이든지 종교개혁을 기념하려는 마음에는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교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16세기 종교개혁에 대한 논의는, 개혁에 대한 필요성 즉 중세교회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다.

종교개혁자들이 지녔던 참신한 사상을 소개받으며, 우리가 구교에 비해서 올바른 신학과 신앙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공감하게 된다. 물론 이 시대의 교회가 받아야 할 개혁정신을 확신하고 결단함으로 상당한 유익을 얻기도 하지만 일시적 공감과 각성으로 마쳐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나님 중심

아마도 종교개혁자들은 후대 교회가 '종교개혁'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할 것이다. 도리어 그들은 '교회개혁'이란 단어를 선호할 것이다. 특히 초기 개혁자들은 자신들이 기존의 교회를 성경의 기준에 따라 새롭게 고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확신하였다. 그러나 '종교개혁' 대신 '신앙개혁'이란 단어를 사용한다면 16세기 또는 17세기 개혁자들 모두 크게 환영할 것이다.

과거 종교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각 성도들이 하나님 면전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개혁은 단순히 기념 정도로

Worldwide church directory with heade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and various church listings including names, addresses, and service times.

리더십 코멘터리 (104)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창조적 비전을 가슴에 품는 리더가 되라

용기를 갖고 도전하라

2020년 2월이 되었다. 한 달여의 시간들이 흘렀지만 우리가 품었던 신년의 꿈은 벌써 시험대 위에서 흔들거린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부터 “과연 나 같은 사람이 마음먹은 일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자신에 대한 신뢰 여부까지 많은 생각이 찾아온다. 하지만 리더는 자신에 대한 흔들림에서 담대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순간의 실패나 무너짐이란 모든 것을 결정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용기를 갖고 도전하는 리더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

는 실패의 속삭임에서 분연히 벗어나는 사람이다. 실패가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쓰러지고 넘어진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지금 능력이 모자라 못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넘어진 것보다, 실수나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리더로서 용기를 갖고 다시 한 번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이다.

더 높은 단계로 상승하라

아파치족이 새로운 추장을 뽑게 되었다. 최종 선발된 세 명의 후보가 높은 산 정상에 갔다 오는 경주를 벌이게 되었다. 하루가 지나서야 한 후보가 돌아왔다. 그는 높

는 수준이 점점 커지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작은 목소리로 말할 수 있고 고백하는 단계이다.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머릿속 상상의 단계를 지나 지성이 되고 인격이 될 때까지 계속 말하고 고백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사자가 으르렁대는 소리를 내듯이 포효하는 수준이 되어 큰 소리로 선포하는 단계이다.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받아 담대한 마음으로 사자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가 되라.

큰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는 리더가 되라

최근 들어 일반 사회보다 교회 안에서 더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전(vision)이라는 말이다. 말이 주는 뉘앙스가 아주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서 모든 사역을 수식하며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꿈꾸는 용어가 되어버렸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물질만능주의 사상으로 더 부유하고 편안하게 발달된 문명 속에서 사는 것이 꿈이다. 그래서 그 꿈의 성취를 위해 전력투구하며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최근 영적리더들도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비전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어 위기의식을 느낀다. 조직화된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믿음의 생각과 행동으로 때로 고립무원이 되기도 하지만 영적리더들은 스스로의 영적 현 주소를 확인해야 한다.

삶은 해석의 문제...인격에 따라 세상 살아가는 방향과 목표설정 돼 소극적 태도와 게으른 습관을 적극적이고 진취적 태도로 변화시켜야

라 한 번 더 일어나는 사람이다.

좌절을 딛고 한 번 더 일어서라

인생은 좌절의 연속이다. 좌절로 인해서 슬픔이 끝나가 싶으면 또 다른 좌절이 찾아온다. 심지어 예상 못한 일이 터지기도 한다. 시편 88편은 성경에서 애가(lament)라고 알려진 슬픈 탄식 시이다. 물론 88편 외에도 시편에는 많은 탄식 시가 존재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탄식 시는 슬픔과 처절한 비탄에서 시작하더라도 결국에는 회개를 통해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을 올려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 그런데 시편 88편은 일반 형식을 따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전반적으로 암울한 분위기만 가득하다. 그래서 시편 88편은 유난히 우리들의 인생과 닮은 듯하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힘들고 버거운 우리들의 인생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실수, 실패, 무기력감을 우리를 주눅 들게 만들고 다음 스텝의 발걸음을 붙잡는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리더는 두려움과 좌절, 자신에 대한 불안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다. 용기 있게 도전하는 사람은 무기력감이 머리를 눌러 일어서지 못하게 하

은 산에서 뽑은 작은 풀을 증거물로 내놓았다. 뒤이어 다음 후보가 달려왔다. 그는 작은 풀을 하나 내보냈다. 마지막 후보가 달려왔다. 빈손으로 돌아온 그가 말했다. “주장님, 우리는 내년 봄에 저 산 넘어 들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거기엔 좋은 평야와 강이 있습니다.” 세 사람 중에 누가 주장이 되어야 할까?

삶은 해석의 문제이다. 어떤 눈으로 삶을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 지금 이 시대에 인격이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가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방향과 목표설정이 되기 때문이다. 인격의 근간이 되는 두 개의 기둥을 말한다면 그것은 신뢰와 겸손이다. 신뢰는 리더를 용기 있는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또한 겸손은 리더로 하여금 나의 시각이 아니라 진실된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한다. 당신은 지금 어떤 눈으로 삶을 바라보는 인격의 소유자인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리더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에서 승리하려면 말씀을 묵상(meditation)해야 한다. 묵상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수준의 단계이다. 성경을 암송하고 깊이 있게 아는 만큼 상상하

영적리더와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교회는 세상이 지향하고 있는 것들과 반대되는 것들을 찾고 구해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리더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영적 혼란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개혁과 꿈이란, 깊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자신의 연약한 점을 발견하고 회개함이 중요하네 오늘날의 교회는 비전을 제시하며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다.

올해는 어제의 수준과 오늘의 현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믿음 안에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는 리더가 되라. 이것은 단지 인간적인 헛된 욕심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비전을 가짐으로 인생의 참된 의미가 리더를 통해 이 땅에 확장되고, 밝고 환한 힘과 에너지가 영향력 있게 세상과 사람들에게 퍼져 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는 소극적인 태도와 게으른 습관을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내가 과연 무엇을 하며 마음먹을 일을 제대로 이룰 수 있을까? 라는 회의에서 벗어나 창조적 비전으로 새날을 맞이하자.

sondongwon@gmail.com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LA비전교회 협력)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에 집중

질문: 지난 10여년 간의 결혼생활이 마감되고 두 남매를 혼자 기르게 된 지 이제 3달된 싱글 엄마입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늘 어려웠던 만큼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쉽지 않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게 도움이 될 만한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답: 이혼이나 사별은 우리 삶에 가장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의 하나라고 합니다. 두려움, 분노, 외로움 등의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신체적으로 움직임 기력이 떨어지고, 정신 집중이 어렵게 됩니다. 많은 에너지가 감정에 소모됨으로써 영적 에너지로 남은 것이 없으니 기도도 잘 안되고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결국, 좌절과 낙심 등의 부정적인 생각 속에 묶이면서 성격마저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충격과 혼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도움 되는 것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주위사람과 같이 있는 것을 피하면서 늦게 자거나 식사를 거르는 등의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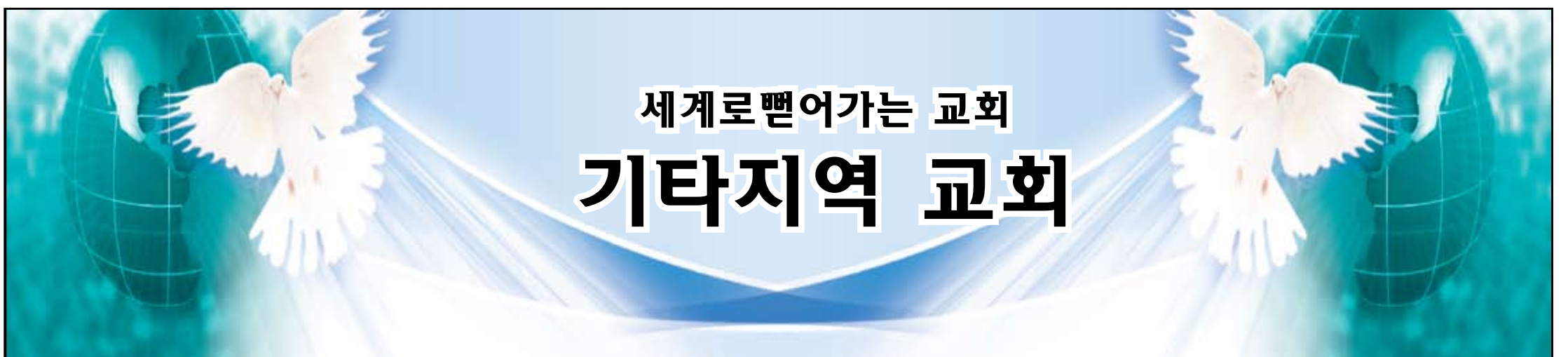
새롭게 처한 어려움에 대해, 왜(why)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기보다는 ‘어떻게(how)’에 초점을 맞춰보면 어떨까요? 오래 전 아용산사건(대통령 수행원으로서 갖던 각료들이 북한공작원에 의한 폭발사고로 목숨을 잃게 됨) 후 한 부인이 한경직 목사님께 “난 그 순간 기도하고 있었습디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내 남편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잠시 깊은 생각을 하시던 기독교계 원로이신 한 목사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왜?’에 대한 질문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기로 하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나간 배우자에 대한 미련에서 헤어지지 못하는 경우라면, 어려서 읽던 이솝 우화 하나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우와 포도’를 보면 포도원을 지나가던 여우가, 포도가 높이 달려 따먹을 수 없게 되자 ‘저건 맛있는 신 포도야!’라며 미련 없이 발길을 돌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보는 거지요.

다음으로 자신의 장점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놀린 자신을 격려하는 것과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하는 것에 관심을 돌려보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을 들자면 직장을 옮기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 혹은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것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런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일은 보류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 첫 번째 등장하는 심골말, 하갈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면서 이혼 회복에 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 광야를 방황하던 중 음식과 물이 떨어지게 되고 죽어가는 아들을 말뚝이 뉘어놓고 통곡하게 됩니다. 그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으며 장차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갈은 천사의 말을 듣고 힘을 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창21:19).
kdrministry@gmail.com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 오전 6:00(토)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울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찬양회: 오후 8:00 영 아 울 배: 오후 8:00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원년: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 아 울 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 토요일 오전 6:30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 아 울 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벽 기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권리(權利)와 의무(義務)

권리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른다. 따라서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논리는 부당하다.

어떤 일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인데 민주주의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에는 자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참정권, 청구권이 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행복추구권은 개인이 자신의 행복을 보장받을 권리이고 생존권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으로, 국가가 함부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헌법에 정해 놓았다.

좀 색다른 것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한다. 사람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의 하나이다.

지극히 당연한 것의 다른 표현은 곧 권리다. 사람에게서는 마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납세, 국방과 교육의 의무 정도가 아니라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권리를 찾아줄 의무가 우선한다는 사실이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단순한 힘, 그 이상이다.

있기 때문이다. 사느냐 죽느냐가 달린 중차대한 사안에는 그저 백 세 시대를 맞이할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그러나 납세, 국방과 교육의 의무 정도가 아니라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권리를 찾아줄 의무가 우선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

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땅에서 취할 가장 큰 사람의 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 알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성도의 의무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hanmac@cmi153.org



제 13회 올네이션스 연합중보기도 컨퍼런스에서 민족대표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다.

한국교회와 자유민주주의 보호 기도선언 제 13회 올네이션스 연합중보기도 컨퍼런스

제 13회 올네이션스 연합중보기도 컨퍼런스가 Global International Missions(글로벌 국제선교·교회연합: 대표 정운명 목사, 월넛크리교회 담임) 주최로 1월 26일 주일 오후 5시30분 30여 민족대표 목회자와 성도,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인근 데일리시티(Daly City)의 샌프란시스코 버어마제일침례교회(담임 Latt Yeshey 목사)에서 미국과 한국 열방의 회복을 소원하며 열려 한국교회와 자유민주주의 보호를 위한 미국교회 연합 기도선언을 발표했다.

이어서 연사들은 한국을 비롯 미국, 미얀마, 중국, 일본, 뉴질랜드, 요르단, 몽골, 홍콩, 타이완, 라티노 등 30여 민족의 중보기도 요청내용과 함께 각국이 당면한 심각한 기도제목들을 PPT로 발표했다.

이날 메시지에서 Dr. Rick Durst(Gateway Seminary SF Campus Director)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인용 “열방의 회복과 치료를 위해 각 민족교회 간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된 사람의 실천과 협력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추구하며 이 땅의 치료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메시지를 전했다.

국 캠퍼스 복음화와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보호를 촉구하면서, 특히 동성애와 낙태 등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미국 사회가 회복되도록 Steve Willhite 목사(콩코드 Parkhaven Community Church 담임)가 회복과 부흥을 위한 선언발표가 있었다.

열방의 특별기도 요청에서 민봉기 목사(산호세 주님의 사랑교회 담임)의 한국교회와 자유대한민국 보호를 위한 프리젠테이션이 있었다. 이어서 Kevin Waldrop 목사(산로렌조 Village Baptist교회 담임)의 한국교회와 자유민주주의 보호를 위한 미국교회연합 기도선언 발표가 있었다.

미국교회를 비롯 미얀마, 몽골, 라티노의 찬양과 함께 한인 커뮤니티에서 샌프란시스코 코로마하프팀(대표 강영해 집사)의 연주도 있었다.

대회장인 정운명 목사는 인사말에서 “5월 2일(토), 3일(주일)의 제 16회 글로벌 국제선교대회(Global Int'l Missions Rally)가 산호세 지역의 획스워치침례교회(Foxworthy Baptist Church, 담임목사 Don Fugate)에서 열린다”고 발표하면서 “복음적인 여러 민족교회가 함께 결속해 협력하자. 미국 내 많은 한인 커뮤니티도 적극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GIM)



시드선교회 제 1기 청년선교훈련팀이 나와 찬양과 간증을 들려주고 있다

1기 훈련생 12명 간증과 찬양 시드선교회, 청년선교훈련센터위한 기도/후원의 밤

시드선교회(대표 박신욱 목사)는 ‘청년선교훈련을 위한 선교센터 마련’을 위한 기도와 후원의 밤을 1월 27일 OC카운티 지역과 30일 LA지역에서 각각 진행했다.

목사(남가주해오름교회)로 진행됐다.

30일 저녁 7시 LA지역 올림픽장로교회에서 열린 기도와 후원의 밤에는 현재 훈련 중인 제 1기 청년 선교훈련팀원들과 이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김호용 목사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마6:35-44)는 제목으로 “어떤 문제나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대부분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문제가 오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볼 수 있어야 하고, 현재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주님께 가져가야 한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목사는 자신이 하와 아이이예야교회 성전 건축을 하며 겪었던 간증을 들려주며 “모두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태호 선교사는 △선교훈련에 참가한 청년들을 위해 △선교훈련센터 구입을 위해 △미주 한인교회의 영적 부흥과 청년 선교동원을 위한 기도를 인도했다.

시드선교회는 작금의 교계상황을 직면하고 청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훈련하기 위해 세계에 흩어진 청년 12명을 선정, 지난해 9월부터 오는 5월까지 ‘청년선교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기도회에 참여한 1기 훈련생 12명은 특별 순서를 갖고 자신들의 간증과 찬양을 들려주며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한편 시드선교회에서는 청년들을 세우는 이 사역에 동참할 기도후원자들과 선교센터구입을 위한 후원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자세한 것은 seedwo@gmail.com 또는 (562)926-4700로 문의하면 된다.



코행가초등학교 8주년 기념 고 권길상 선생 추모음악회에서 코행가초등학교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KAPC 2020 동부지역 목사장로 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동성애 문제...어떻게 교회 지켜야 하나?” KAPC 2020 동부지역 목사 장로 기도회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양수철 목사) 2020 동부지역 목사 장로 기도회가 총회 교육부가 주관하고 필라델피아노회가 주최한 가운데 2월 3일부터 5일까지 샌디 코브 미니스트리에서 열렸

다. “동성애 문제로부터 어떻게 교회를 지켜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기도회에는 다음세대 가치관 정립 및 보호 단체인 TVNEXT.org의 공동대표인 김태오 목사와 사라짐 사모가 강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신년동문의 밤’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동문회 역할은 선후배간 가교” 미주장로회신학대 동문회 ‘신년 동문의 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이하 미주장신대) 동문회(회장 박종희 목사) 주최 ‘신년 동문의 밤’이 지난 1월 20일 오후 6시30분 미주장신대내 소재한 아름다운동산교회(담임 최명환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의 행사는 1부 예배, 2부 만찬과 교제 순서로 이어졌다.

이성희 목사는 설교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에스라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험난한 여정 내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했다”며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믿음과 냉철하게 자

1부 예배는 동문회장 박종희 목사의 인도로 전우진 전도사의 찬양인도, 김덕예 목사의 기도, 김일권 목사의 성경봉독(에 8:21-23), 이영진 목사의 특별 찬양, 이성희 목사의 설교, 민준기 목사의 격려사, 그리고 양

기호 목사가 축사를 한 후 고영준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추지훈 전도사의 사회로 이어진 2부 만찬과 교제에서는 이상림 목사가 식사기도를, 오충성 목사가 동문 소개를 한 후 유쾌하고 훈훈한 교제의 시간을 가진 후에 이명환 목사의 기도로 행사를 폐했다.

코행가초등학교 고 권길상 선생 추모음악회

코행가초등학교 동요 8주년 기념 고 권길상 선생 추모음악회가 보나뮤직(대표 이혜자) 주최로 2월 1일 오후 4시 코행가초등학교에서 열렸다.

이혜자 대표는 “‘아빠하고 나하고’를 만드신 권길상 선생님이 고인이 되신지 5주기를 맞아 이 음악회를 준비했다”며 “한국동요가 미국에서 태어난 어린이들에게 모국어를 담고 살아갈 수 있는 메시지가 되길 희망하며 이 음악회를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했다.

이날 음악회는 코행가초등학교합창단, 이중언어프로그램 한국어반 어린이들, 소프라노 김중수, 이나은, 테너 양두석, 바리톤 장상근이 출연해 아름다운 동요를 불렀다.

올 한해 미주장신대동문회에서는 신년 ‘동문의 밤’을 시작으로, 2월 모교홈커밍데이, 3월과 9월 모교신앙사경회, 5월과 9월 동문야유회, 6월 모교졸업식과 신입생활영회, 10월 동문회 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사로 참여해 △비성경적인 성교육의 실제 △동성애에 실제와 오해 △반기독교 법안들과 결과물 △교회와 대안과 준비 등 4번의 강의를 했다.

첫날 오후 7시 진행된 개회 예배에서는 총회장 양수철 목사가 설교를 했으며, 화요일 저녁에는 부총회장 조준휘 목사가 설교했다. 총회에서는 서기 한일철 목사와 총무 김영기 목사도 참석해 순서를 맡았다.

또 필라델피아노회 채왕규 목사, 워싱턴노회 한세영 목사, 뉴잉글랜드노회 황문영 목사, 뉴욕서노회 임동열 목사, 펜실바니아노회 장부안 목사, 가든노회 김재호 목사 등 노회장들이 노회원들과 참석해 순서를 맡았다.

기도회는 수요일 오찬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기사제공: KAPC 필라노회)

신을 바라보는 영적 분별력을 갖춤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민준기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목회의 길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영광의 길이기도 하지만 사람 편에서 보면 고난의 길이기도 하다”며 “동문회는 성공한 사람들만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모이는 자리이니 힘을 내서 서로를 돕는 일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이처럼 축사에서 양기호 목사는 “미주장신대 동문회의 회원이 된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것이다.”고 하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종들로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38대 동문회장인 박종희 목사(코이노니아선교회 대표)는 “미주장신대는 1977년 개교 이래로 배출한 500여 명의 동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고 있다”며 “동문회의 가장 큰 역할은 선후배 동문간의 가교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38대 임원단은 4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주장신대 동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 하나님 나라 건설에 협력하도록 사랑과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동문회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동문들이 모교와 동문회의 발전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올 한해 미주장신대동문회에서는 신년 ‘동문의 밤’을 시작으로, 2월 모교홈커밍데이, 3월과 9월 모교신앙사경회, 5월과 9월 동문야유회, 6월 모교졸업식과 신입생활영회, 10월 동문회 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기사제공: 미주장신대동문회)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찬양대 지휘자 청빙

뉴욕 롱아일랜드 힐스빌에 위치한 사랑의동산교회(담임 강신용 목사)에서 찬양대 지휘자를 청빙한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aerimkang@hot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646)752-1453

파트타임 전도사 청빙

PCA 교단인 애틀랜타 새한장로교회(담임 송상철 목사)가 파트타임 전도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PCA 소속 혹은 가입가능, 팀사역에 함께 할 개혁주의 목회자,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영어소통 가능,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 및 졸업예정자로 미국거주 및 취업에 법적 문제가 없는 미국에서 주일학교, 중고 등부, 청년부 사역경험자 우선, 35세 이하(1985년생까지)이며 △사역부분은 교육부 1명(파트타임)(부서는 사역경험과 상황에 따라 조정예정) △사역내용은 어린이부 or K-Youth or 청년부 및 행정보조. △제출서류(PDF)는 이력서, 자기소개서(본인 및 가족사진 포함), 비전서, 설교동영상 2편(Youtube 링크 첨부), 추천서 2부(담임목사, 신학교교수, 지인)는 직접 이메일(saehanchurch3385@gmail.com)로 보내면 된다. 취업입증서류. 서류는 이메일로 보내야 하며 접수마감은 2월 29일까지.

▲문의: (678)770-5332 오건목 목사

뉴욕한빛교회 정원석 5대 담임목사 취임



뉴욕한빛교회 제 5대 담임 정원석 목사(사진) 취임식이 1월 26일 미주성결교회 동부지방회 주관으로 열렸다. 뉴욕한빛교회는 1976년 개척돼 44주년을 맞은 성결교단 소속으

로, 지난해 4월 윤종훈 목사가 원로목사로 추대됐다. 정원석 목사는 서울신학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사우스웨스턴침례신학교에서 목회학석사 학위와 트리니티신학교에서 구약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공부하며 2006년부터 시카고 한인교회들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했으며, 2015년부터 시카고 등대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다 청빙 받았다.

복음을 사는 자가 됩시다!

뉴저지교협 2020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

뉴저지교협 2020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이 1월 28일 오후 6시30분 뉴저지초대교회 교육관에서 열렸다. 1부 만찬, 2부 예배, 3부 하례식으로 진행됐다.

회장 장동신 목사는 순서지에 '말씀 김진수 장로'라고 돼 있는 것은 인쇄 실수이며, 원래는 '선교메시지'였다고 해명하고 간단한 설교를 전했다.

장 목사는 33회기의 표어인 "복음을 삼시다"를 강조하며, "전도 받아 교회 오는데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보면 너의 사는 모습을 보기 싫어 간다는 것이다. 결국 말씀과 삶이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으로 복음을 사는 자가 되어 한다는 측면에서 33회기 표어를 그렇게 정했고 신년하례를 시작하며 이 말씀으로 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장로는 선교 간증과



뉴저지교협 2020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을 마치고 참석목회자와 사모들이 기념촬영 했다.

더불어 전한 메시지에서 "사람마다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가 다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친구가 좋아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디엘 무디가 100중 1명은 성경을 읽고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고 말했는데, 내가 친구를 닮기 위해 교회에 나갔듯이 대부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교회에 나온다. 요사이 전도가 왜 어려운가? 닮고 싶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도전했다.

3부 하례식에서 장동신 목사는 신년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복음의 사명도 주셨다. 복음은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이며 우리 믿음의 출발이고 우리 믿음의 꽃이다. 33회기는 복음이 우리 모든 삶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사는 교회'로 표어를 정했다. 모두 하나가 되어 복음을 사는 교회를 이뤄가자"고 선언했다.

1부 만찬에서는 초대교회 박형은 목사가 참가자들을 환영

하고 만찬기도를 했다.

2부 예배는 인도 최준호 목사, 기도 이의철 목사, 설교 장동신 목사, 성경봉독 하늘 목사, 특송 뉴저지목사합창단, 선교메시지 김진수 장로, 합심기도, 봉헌기도 송호민 목사, 광고 육민호 목사, 축도 양춘길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합심 통성기도는 신철웅 목사가 "세계평화와 인류번영을 위하여", 백형두 목사가 "미국과 한국과 한민족을 위해", 정일권 장로가 "뉴저지동포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인도하고 마무리기도를 했다.

3부 하례식은 김대호 목사 사회로 개회연주 월드밀알밴드밴드와, 국가제창 이하얀 사모, 신년사 장동신 목사, 축사 순환의 뉴저지한인회 회장과 장원삼 뉴욕총영사, 민승기 미기연회장, 고명진 목사(2020 호산나대회 강사) 등은 영상으로 축사했다. 다이애나킴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했으며, 장동신 회장이 사업보고를 했다.

이어 뉴저지권사합창단과 뉴저지장로성가단의 찬양이 있던 후 "예수 예수"를 함께 찬양하고 윤명호 목사 폐회기도로 순서를 마쳤다.

(기사제공: 뉴저지교협)



뉴욕선교로교회 설립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 목회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안디옥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루라!"

뉴욕선교로교회 설립감사예배, 김경수 박병섭 공동담임

뉴욕선교로교회 설립감사예배가 2월 2일 오후 5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노회 주관으로 열렸다. 뉴욕선교로교회는 김경수 목사와 박병섭 목사의 공동담임 체제로 출발했다.

뉴욕선교로교회가 위치한 우드사이드(67-02 Woodside Ave)에 25년 된 한인교회가 목회자 없이 소수의 성도들만 남아 지난해 10월말로 문을 닫아야 하는 형편이었는데, 개척을 기도 중이던 김경수 목사가 광고를 보고 전화해 연결됐다.

김경수 목사는 동문 박병섭 목사와 함께 선교적 교회를 위해 팀사역을 제안하고 올 1월 공동의회에서 공동담임목사로 위임을 받고, 교단 가입을 결정했다.

교회이름을 "선교로교회(Living Missional Church)"라고 할 정도로 선교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김경수 목사는 "공동담임을 하는 이유는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교회가 감당한다는데 우리 두 목사는 뜻을 같이하고 그 마음이 변치 않으면 흔들림이 없다고 확신한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약속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기를 다짐하며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예배는 인도 박병섭 목사, 찬양 인도 정인수 목사(뉴욕좋은교회), 대표기도 정기태 목사(뉴욕새벽장로교회), 찬양 글

로리아 중창단(퀸즈장로교회), 말씀 김성국 목사(부노회장, 퀸즈장로교회), 헌금송 뉴욕선교로교회 성도, 헌금기도 이윤석 목사(부르클린제일교회), 교회설립경과보고 김경수 목사, 특송 조슬기 자매, 권민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축사 강기봉 목사(전 총회장, 백민교회 원로), 축사 이종원 목사(뉴욕새사람교회), 광고 강재경 장로, 축도 홍춘식 목사(노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성국 목사는 "안디옥교회의 놀라운 부흥"(행11:22-26)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교회가 설립되면 다음 순서는 부흥이 되어 한다. 건강한 교회라는 단어도 좋지만 원색적으로 부흥을 달라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달라는 것이 계속적인 소원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한다"며 초대교회 부흥의 모델인 안디옥교회를 통한 부흥의 원인들을 전했다.

김 목사는 "안디옥교회 부흥의 원인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 둘째,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 셋째, 본질에 충실 넷째, 변화하는 성도"라며 이들의 호칭이 '무리'에서 '제자'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을 소개했다.

▲연락처: 김경수 목사 (718-640-4022), 박병섭 목사 (718-490-6316) (정리: 유원정 기자)



동부개혁장신 개강부흥회 첫날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복음의 뿌리를 찾아서" 주제

동부개혁장신 개강부흥회, 강사 박용규 목사 김성국 목사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가 1월 27일 오후 7시45분부터 사흘간 퀸즈장로교회 양승관과 분당에서 열린 개강부흥회를 시작으로 2020년 봄학기 개강에 들어갔다.

"복음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첫날과 둘째 날은 박용규 목사가, 셋째 날은 김성국 목사가 설교했다.

현재 총신대 신학대학원 역사신학교수인 박용규 목사는 "성령으로 명하시고"(행1:1-2), "성령의 부으심을 사모하라"(행2:3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학장 김성국 목사(퀸즈장로교회 담

임)는 "어느 편에 설건가"(겔44:10, 1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또 첫날엔 신입생들에게 장학증서와 교훈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부개혁장신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입각한 1. 말씀에 굳게 서라 2. 경건을 연습하라 3. 헌신의 일꾼되라 4. 복음의 증인되라라는 4개 교훈을 갖고 있다.

2020년 봄학기는 5월 일 강의를 마치고 시험과 과제물 제출로 마감된다.

(유원정 기자)



유카탄연합선교회 창립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창립 계기는 두 갈렙"

유카탄연합선교회 창립감사예배, 12교회 연합

유카탄연합선교회(YUM, Yucatan United Mission) 창립감사예배가 1월 20일 오후 7시 한길교회(담임 이병준 목사)에서 열렸다.

연합회 소속 교회들은 모두 12개로 가나안한인교회(진박민 목사), 뉴저지영광교회(정광희 목사), 맨하탄장로교회(조기철 목사), 새연약교회(김종국 목사), 시온제일교회(원도연 목사), 예순교회(김상웅 목사), 주 소원교회(육민호 목사), 주 예수 사랑교회(황용석 목사), 하나교회(이준기 목사), 한결교회(황성현 목사), 한길교회(이병준 목사), 한성개혁교회(송호민 목사).

멕시코 유카탄은 1905년 영국 상선을 통해 해산당한 군인 등 1,031명이 인친 제물포항을 떠나 유카탄 반도로 이민, 농장에서 사실상 노예이민생활을

했다. 계약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한일합방으로 나라가 없어졌다. 115년이 지난 지금은 6세대까지 내려왔지만 한인 후손들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다.

창립 보고를 통해 김종국 목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신묘마혹하다"며 "이전부터 미주의 대형 한인교회들을 중심으로 한 유카탄 선교회가 있었지만 선교단체와 합류해 없어졌으며,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 모여 유카탄 선교를 하다 연합의 시너지를 위해 선교회를 조직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번 연합회 구성의 결정적 계기는 1월 말에 파송되는 원성우 선교사와 정일권 선교사 때문이다.

원성우 선교사는 15년 전 뉴저지실버선교회를 통해 67세

"공정하고 당당... 신뢰도 높은 언론 되겠다"

복음뉴스 창간 3주년 감사예배 및 기념식

인터넷 기독교언론 복음뉴스가 창간 3주년을 맞아 감사예배와 기념식을 가졌다.

2월 2일 오후 5시 뉴욕만나교회에서 가진 기념식에서 대표 김동욱 목사는 "복음뉴스를 창간하신 분도 복음뉴스를 운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감히 간증할 수 있다"며 "첫째, 공정하고 당당한 복음뉴스 둘째, 기사와 논평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복음뉴스 셋째, 정직한 기사가 잘 쓴 기사라는 생각을 굳건히 지키는 복음뉴스 넷째, 아닌 것은 아니라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복음뉴스 다섯째, 바른 용어, 바른 단어 사용을 위해 계몽하는 복음뉴스가 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감사예배는 남일현 목사(뉴욕 든든한교회) 인도로 경배와 찬양 박종훈 목사(뉴저지 우리 사랑의교회), 기도 주효식 목사(뉴욕정원교회), 성경봉독 송운섭 장로(뉴욕장로연합회 교), 특송 김성욱 집사(새인약교회), 설교 이종식 목사(뉴욕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봉헌기도 하정민 목사(햇불선교교회), 광고 오영아 집사(KCBN 편성부장), 축도 박효성 목사(뉴욕한인제일교회 원로) 순서로 진행됐다.

이종식 목사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6:6-13)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52년을 치리한 웃시아 왕이 죽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가 갈꼬 묻는 하나님께 자신이 가겠다고 답하고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사야 이야기를 하며, "소명이 있으면 거리낌 없이 전한다. 김동욱 목사님은 창간 전부터 거리낌 없이 글을 쓰셨다"고 말하고 "소명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신다. 소명감이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도 인정한다"며 "복음뉴스가 소명감이 있는 언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념식은 송호민 목사(뉴저지한성개혁교회) 사회로 환영사 정관호 목사(뉴욕만나교회), 복음뉴스를 말한다 유원정 편집국장(미주크리스천신문), 복음뉴스에 바란다 한준희 목사(뉴욕성원장로교회), 축사 양민석 뉴욕교협회장 이병준 전 뉴저지교협회장, 축하 연주 뉴욕크로마하프연주단, 복음뉴스를 위한 기도 김주현 목사(뉴저지 세움교회), 인사말 김동욱 발행인, 폐회 및 식사기도 이준성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복음뉴스 창간 3주년 감사예배 및 기념식에서 발행인 김동욱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세계기도모임 서부지부 창립...기도회 열어

총재 피종진 목사, 서부지부총재 김영구 목사

세계기도모임(세기모, 총재 피종진 목사) 서부지부 창립에 배가 2월 2일 오후 4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열렸다.

김영구 목사(서부지부 총재)의 사회로 진행된 기도회는 김관진 목사(자문위원, 전 남가주목사회 회장)가 기도했으며 국민의례, 미국 국가 및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등의 순서로 진행을 하면서 김영구 목사가 세기모를 소개했다.



세기모 서부지역 창립 감사예배 및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이어 피종진 목사가 동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하고, 박형우

목사(대표회장), 한기형 목사(하늘문교회, 남가주교협 직전 회장), 조선훈 장로(대표장로) 등이 축사한 뒤 강신권 목사(자문위원), 이병만 장로(미주한인재단 LA회장)가 각각 권면했다. 이어서 윤건상 목사(서부지부 자문위원)가 회개의 기도

를 하고, 김영구 목사(서부지부 총재)가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를, 최재노 선교사가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를, 엄규장 목사(미주한기총 부회장)이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위한 기도를, 그레이스송 권사(3.1여성동지회 회장)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윤우경 권사(CHTV 크리스찬헤럴드 총괄본부장)가 '결단의 골'을 울렸으며 김향로 장로(남가주교협 직전이사장)의 기도도 마쳤다.

한편 박세헌 목사(서부지부 사무총장)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강태광 목사(서부지부 LA지부장)가 대표 기도하고, 이상명 총장(미주장신대학 총장)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기도의 능력'(계8:1-5)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윤에스더 목사가 특송을, 여호수아지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미주한인기독실업인회는 오를랜드에서 이사회 개최 및 총회 감사예배 드렸다

성경적 경영, 섬김의 리더십, 일터사명완수

미주한인기독실업인회 이사회 개최 및 총회 감사예배

미주한인기독실업인회(총회장 황선철 장로)는 지난 1월 25일 북가주 소재 오를랜드 오가네 BBQ 한식당에서 2020년 이사회 개최와 총회 창립 1주년 감사예배를 했다.

이날 황선철 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성경적 경영, 섬김의 리더십과 지회(재)창립 역량 강화 일터사명완수"의 새해 비전을 선언했다.

감사예배는 인도 강승태 총회 수석부회장, 찬송인도 조종애 권사, 기도 순의교 지회장(LA드림빌더 지회)가 순서를 맡았다. 특선으로 남가주연합회에서 참석한 회원들의 특별 찬송이 있었다. 최승암 지도목사(트라이밸리지회)는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창7:6-12)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기독실업인들의 복음전파 사명과 새 비전을 강조했다.

권면은 모종태, 이상백, 신승수, 모종태 상임고문이 맡았으며, 동역자들의 일터사역에 용기를 더했다. 축사와 축도는 김이수 목사(SF 지회 1대, 2대 지회장)가 담당했다.

예배에 앞서 열린 정기이사회는 김승엽 지도목사(LA KTown지회)가 개최기도를 맡

았다.

이사회는 미주한인기독실업인 서부총회 명칭을 '미주한인기독실업인 총회'로 변경하고,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총회의 미주지역 일터사역 확대에 따른 사역역량강화를 위해 이봉우 남가주연합회장을 총회 공동부회장으로 선출하고, 상임고문의 이사직 겸임을 승인했으며, 총회 서기에 피터백 사장을 선임했다.

또한, 신정현 사무총장의 새해 연간 사업계획 발표와 함께 지회(재)창립계획, 리더십 육성 교육 전력(워크샵 및 아카데미, 3월 하와이, 9월 시애틀), 웹사이트와 Weekly 소동, 네트워킹 강화 등의 총회 중점 사업계획은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미주한인기독실업인회 총회는 현재의 남가주연합회(이봉우 회장), 북가주연합회(강승태 회장), 서북부연합회(윤운호 회장)와 하와이연합회(윤여민 회장)를 미주 지역 분권 광역화의 초기 단계로 준비 중이며, 연합회 소속 각 지회 및 예비지회는 매주 1회 정기 모임을 갖고 있다. <문의: (213)273-5779 총회 사무총장 (기사제공:미주한인기독실업인회)>



크리스천문인협회신구회장 이. 취임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최선 대해 교류하고 지역사회위해 협력"

미주크리스천문인협회 신년하례예배 및 회장 이취임식

미주크리스천문인협회 신년 하례예배 및 신구 회장 이취임식 행사가 2월 1일 오전 10시 로텍스호텔 1층에서 열렸다.

유민호 신임회장은 "지난 임원진들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교류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협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1부 예배는 정지윤 목사 사회로 김재율 목사가 대표 기도하고 최학량 목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사60: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최학량 목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새 생명의 빛"이라며 "현재

지구촌에서는 온갖 질병들이 난무하고 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인데 성도들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문인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최선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제 2부 신구 회장단 이취임식이 진행됐다.

박용기 목사가 기도하고 김숙영 교수 찬양에 이어 구영미 교수가 바이올린 연주를 했다.

이날 김창호 목사(기독뉴스 LA지부장)와 김운영 이사에게 각각 감사패를 증정했다. <기사제공: 미주크리스천문인협회>



오랜지현교회에서 열린 숭실대학교 웨스트민스터 합창단 미서부 연주회에서 합창단원들과 학교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깊은 신앙심과 기쁨으로 찬양

숭실대 웨스트민스터합창단 미서부 연주회

숭실대학교 웨스트민스터 합창단(음악감독 장세완) 미서부 연주회가 2월 2일 오후 6시 30분 오렌지현교회(담임 피세원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황준성 숭실대학교 총장은 "숭실대학교는 대한민국 최초 4년제 기독교대학"이라 소개하고 "음악을 전공한 학생들이 아닌 찬양으로 기쁨을 돌리는 사명을 가지고 활동하는 합창단이다. 미서부 동문들을 찾아 위로하고 하나 되는 동문들을 격려 위로하고 코이노니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 총장은 "합창단원들의 깊은 신앙심과 찬양의 기쁨으로 은혜를 끼쳐드린 거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장세완 교수는 "웨스트민스터합창단이 13년 만에 남가주 지역을 방문했다"며 "이곳에

서 어린 시절 가르쳐주신 선생님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돼 마치 고향에 온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연주회는 'Pacem', '시편23편', '꽃들도', '웃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고향의 노래' 등 합창과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등 여성합창, '벧노래' 등 남성합창이 있었으며, 이중창으로 'The Prayer' 무대가 있었다. 또한 합창성가곡 '원해'를 단원들이 수화하고 함께 불렀으며 앵콜곡으로 '주기도문'을 불러 은혜를 더했다.

한편 웨스트민스터합창단은 지난 1월 29일 나성영락교회와 인랜드교회, 31일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2월 2일 오전 파사데나장로교회 공연을 했다. 이어 5일 임마누엘장로교회와 베를린교회에서 미서부 마지막 공연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강석희 전 어바인시장 등 강연

'넷캘', 미주한인리더 미디어트레이닝 워크샵

재미 한인 차세대 지도자 모임인 '넷캘(NetKAL: The Network of Korean American Leaders)'은 글로벌 한인 차세대 지도자 재단(Global Korean Leaders Foundation) 후원으로 1월 31일 코리아타운에서 한인커뮤니티 및 비영리단체 리더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트레이닝' 워크샵을 개최했다.

미국 내 미주한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입지를 다지며 미국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자 그룹으로 성장해가고 있고 'BTS'와 한국영화로 첫 오스카 작품상 후보까지 오른 '기생충'을 필두로 'K팝', '한국음식', 'IT산업', 'K뷰티' 등 한국 콘텐츠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돼가고 있지만 미주류 언론에서 한국이나 미주한인 사회 관련 이슈들이 여전히 제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현실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진행된 워크샵은 홍보대행사인 Imprinta Communications의 미디어 트레이닝 최고전문가가 진행했

다. 참석자들은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미디어 대응기술훈련, 자연스럽고 주도적인 인터뷰를 위한 기법, 상황별 인터뷰 전략과 실제 카메라대응훈련 등을 통해 미주류 언론 앞에서 한국 및 한인 커뮤니티의 입장에 대해 효과적이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어떻게 핵심 메시지 위주로 전달하는가 등에 대한 노하우를 배웠다.

워크샵에는 특별히 강석희 전 어바인 시장이 참석해 '미주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과 영향력'이란 주제로 본인의 정치참여 동기 및 의미를 증언했고 3월 예비선거를 앞두고 미주한인 정치력 도약과 영향력에 대해 소개했다.

K팝의 해외 유통·홍보 전문가인 DFSB 콜렉티브(Kollective) 대표 '버니조(Bernie Cho)'는 K팝이 세계 음악 분야와 시장에서 얼마나 가공할 만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기사제공: 넷캘미디어>

서부교계 게시판

기쁜우리교회 설립기념 감사예배 및 임직식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는 교회설립 3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은퇴 임직식을 9일(주일) 오후 5시에 갖는다. <문의: (818)662-0400>

밸리주하나교회 교회통합 감사예배

밸리주하나교회(담임 오정택 목사 8131 Tampa Ave. Reseda)는 교회통합, 담임목사 취임, 권사임직 감사예배를 9일(주일) 오후 4시에 갖는다. <문의: (818)794-0691>

성화장로교회 이천 목사 찬양집회

성화장로교회(담임 이동진 목사)는 찬양사역자 이천 목사 찬양집회를 7일(토) 오후 8시에 갖는다. <문의: (310)515-1191>

남가주연합감리교회 교단상황 설명회

남가주연합감리교회 교단상황 설명회가 16일(주일) 오후 4시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김낙인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626)959-9191>

유소년 담당 사역자 청빙

복음장로교회(담임 이광형 목사)는 유소년을 담당할 사역자를 청빙한다. 자격은 이중언어가 가능하고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며, 신앙고백서, 추천서(2부), 개인 혹은 가족사진을 이메일(bogumkgpc@gmail.com)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 (562)694-6214>

주일학교 담당 목회자 모집

나성금란교회(담임 이석부 목사)는 주일학교 담당(1명) 사역자를 모집한다. 자격은 이중언어가 가능한 자로 영어로 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kumranumc@gmail.com)으로 9일까지 보내면 된다. <문의: (310)973-5106>

JesusKidz 교사 세미나 안내

지저스 키즈(JESUS KIDZ 대표 임은희 전도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 영혼들을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한 JESUS KIDZ 세미나를 오는 29일(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올림피아교회(담임 정장수 목사 3020 Wilshire Blvd #160, LA)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부활절, 어머니주일, 성경공부 공작 CRAFT, 재밌는 풍성 강의로 진행되며 찬양, 설교, 성경공부 지도(LIFE WAY GOSPEL PROJECT) 교재가 배부된다. 강사는 지저스키즈 대표 임은희 전도사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 문의: (213)422-0022>

인랜드교회 선교컨퍼런스

인랜드교회(담임 안환 목사) 선교컨퍼런스가 7일(금)부터 9일(주일)까지 개최된다. 강사는 마이클 오 박사(국제로잔운동 총재)이며 일정은 7일(금) 오후 7시30분, 8일(토) 오전 6시, 오후 7시30분, 9일(주일) 1-3부 예배. <문의: (909)717-0909, (323)524-8724>

박순애 전도사 초청 특별집회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담임 한의준 목사)는 박순애 전도사 초청 특별집회를 6일(목)부터 9일(주일)까지 오후 7시에 개최한다. <문의: (808)536-7244>



GIFT 상담치유연구원에서 개최한 회복으로의 여행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두뇌 연습하면서 치유 경험...

GIFT 주최 "회복으로의 여행" 세미나

GIFT 상담치유연구원원이 개최한 "회복으로의 여행" 세미나가 지난 1월 25일과 2월 1일 열렸다.

"회복으로의 여행" 세미나는 내안에 여러 이유로 성인이 되지 못한 어린 내면을 보고 치유함으로써 성숙한 성인이 되게 돕는 소그룹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뇌에 대해서 배우고 또 두뇌 연습을 하면서 치유를 경험하는 몸, 마음, 영혼의 통합된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기사제공: GIFT 상담치유연구원>

러 참가자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고 이해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고 소그룹 활동을 통해 치유의 시간을 경험함으로 현재 자신의 삶에서 갖고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다. 특별히 지난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지난 40년 동안 의식하지 못했던 문제로 원만하지 못했던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등 간증이 넘치는 시간이 됐다고 주최측은 전했다.

원로칼럼

성도는 존귀한 자이다



정성구 박사
(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

다윗은 시편 16 편에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고 했다. 성도는 그리스천이다. 성도는 곧 평신도이다. 옛날 카톨릭교회에서는 사제란 아주 존귀하고 높임을 받는 직분이지만 평신도는 수동적이고 아무 역할이 없는 것으로 알았다. 그러다가 근래에 와서 카톨릭의 이브콩갈(Yves M. J. Concar, 1904) 신부는 평신도의 소중함을 일깨웠다. 그리고 그는 "평신도 신학서설" (Talono powr une theologie du laicat, 1953)이라는 책을 썼다. 당연히 그는 카톨릭에서 자유주의자로, 이단으로 몰리고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 후 개혁신교회에서 세계선교의 이론체계를 세운 헨드릭 크레머(Hendrick Kraemer)는 그의 명저 "평신도 신학" (Het Vergeten ambt in de kerk, plaats en Roeping van het gewone gementlid, 1960)을 발표했다. 그런데 크레머 박사는 그의 책 부제목에 있는 대로 "평신도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잊혀진 직분"이라고 표현한 것은 흥미롭다. 이 책은 오래 전에 한국에서 "교회 혁신의 신학"이라고 번역되기도 했다.

그 후에 한국교회는 1970년대에 들어와서 평신도에 대한 관심이 부족 늘었고, 그동안 평신도 운동에 냉담하던 보수주의 교회들도 점차 제자훈련, 지도자훈련, 제직수련회, 평신도 강좌 등을 통해서 평신도의 잠재력을 일깨워서 교회봉사는 물론이고 전도와 선교사역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에서는 사랑의교회를 세우신 옥한흠 목사가 이 평신도신학을 한국 실정에 맞게 채용해서 이른바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크게 성공하고 대형교회가 된 사례이다.

평신도 신학의 핵심은 평신도를 하나의 직분으로 보자는 것이다. 평신도는 헬라이어의 Laos인데 아브라함 카이퍼의 책에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또는 '성도'란 말이다. 하지만 교회사에는 이 말의 본뜻이 점점 세속화되어서, 평신도란 지식이나 학문 분야에서 말하거나 비판할 자격이 없는 자로 바뀌었다. 그래서 평신도 하면 무식하다는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교회에서는 '반교직자적' '반종교적' 또는 '학문 없는 자'란 뜻으로 썼다. 하지만 성경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몸 된 교회의 지체이다. 교회는 지체들 간의 아름다운 조화 때문에 영화롭다. 교회의 지체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 '택함 받은 자' '제자' '형제'라고 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각 지체들의 차이만 신분적 계급이 아니고 '분량'대로의 은사에 두고 있다. 그야말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고전

12:4~5)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엡4:7).

교역자도 평신도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며 천국시민이다. 평신도란 그냥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명한 신학자 반 룰러(Van Ruler)의 말대로 "평신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이다"

평신도에 대한 깨우침은 마틴 루터(M. Luther)의 만인제사론(萬人祭司論)에 근거한다. 즉, 목사만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 평신도도 소명자이며 청지기의 직분이 있다. 그래서 옥한흠 목사의 책 "평신도를 깨운다"는 과거에 평신도는 교회에서 아무 직분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평신도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는 청지기로서 전도와 선교의 최전선에서 있음을 일깨우는 것이다. 잠자는 평신도를 깨우는 운동이 중요하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아직도 교역자는 주의 종으로 특별하고, 평신도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듯 하다. 그래서 성령체 합하고 은혜 받으면 모두가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공식이 이루어졌다. 또 많은 목사님들이 청년들 중에 중요한 영적 자원은 모두 교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교역자인 목사의 사명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교회 행정의 수반으로서 사명이 있다.

나는 평생을 신학교에서 가르쳤다. 그런데 그 많은 목사 후보생 중에는 평신도로서 하나님께 봉사 했으면 큰 일 할 분들이 참 많았다. 그들 중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등에서 큰 일 할 분이 많았다. 우리 한국사회와 교회에 만연하는 이원론적세계관(二元論的世界觀) 즉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복음을 위해 일하는 방법은 목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의 것은 모두 세속적이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사상이 대부분이다. 그래서인지, 한국에서는 정구 신학대학교 말고도 수백 개의 신학교에서 속성으로 목사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런데 졸업 후 목사가 되어도 일터가 없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목사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다. 장사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성도는 존귀하다. 기술자로서 자기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성도는 존귀하고 영화롭다. 이 세상에는 수 천 수 만 가지의 일이 있다. 그리스도안에 있는 위대한 신앙의 군인도 경찰도 공무원도 참으로 멋지고 존귀하다. 평신도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위해 할 일이 널리고 널려있다.

한국교회 강단은 여전히 이원론적 세계관으로 설교하고 있다. 평신도 제자훈련을 통해서 교역자는 자기의 제자를 만들지 말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되면 성경에 있는 대로 땅에 있는 성도는 모두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목사도 소명을 받아야 되지만, 평신도도 삶의 모든 영역에 부름 받은 소명자이다.

신종 코로나가 바꾼 주일 풍경

주일인데 교회가 문을 걸어 잠갔다. 불은 꺼졌고 성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서울 종로구 명륜교회(박세덕 목사)의 2일 풍경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신종 코로나) 6번 확진자는 일주일 전인 지난달 26일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전날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국내에서 확인된 5~11번째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의 자세한 동선과 접촉자 등 역학 조사 내용을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명륜교회는 일본 발표 직후 주일예배 없이 목

는 내용이 빠지지 않고 들어갔다. 서울 신촌교회 박노훈 목사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거둬주시고 기도도 이번 사태를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고 축도했다.

신종 코로나 진원지인 중국 우한을 떠나 귀국한 한국 교민을 격리 보호하고 있는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 지역 교회들은 지역 주민과 격리된 교민들을 위해 기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산에서 목회하는 A목사는 "우한 교민을 아산에 수용한다는 정부 발표 직후 주민들이 격앙돼 있었던 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성도들과 공유했다. 사랑의교회는 출입구에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두고 성도들이 자율적으로 체온을 측정할 수 있도록 비접촉식 체온계도 비치했다. '신종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교회 에티켓'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에도 올렸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악수 대신 목례로 인사하기, 손소독제 사용하기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성도들도 신종 코로나 방역에 자발적으로 나섰다. 감염에 취약한 노약자는 교회 출석을 자제했다. 천식이나 감기 등으로 기침이 잦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교회

마스크 쓰고 예배, 악수 대신 목례...교회도 '예방 모드'

사 단독으로 녹화된 설교 영상을 올리겠다고 성도들에게 알렸다. 박세덕 목사는 "국가의 방역정책에 협력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했다"며 "비록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설교영상으로 은혜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명륜교회 외에 전국 교회는 대부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주일예배를 드렸다. 신종 코로나 방역을 위해 성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한 곳이 많았다. 경기도 고양 일산총신교회에선 찬양을 성가대 없이 영상으로 대체했다.

설교와 기도에는 신종 코로나의 확산세가 잡히고 불안한 국민들에게 힘을 주기 바란다

사실이지만, 불안을 감내하고 교민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다른 지역 교회들이 이곳 주민과 교민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대신, 합신,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등 주요 교단은 신종 코로나 대응 지침을 마련해 전국 교회에 전달했다. 한국교회연합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신종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한 교계와 사회의 협력, 한국교회의 기도를 요청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분당우리교회 등은 주일을 앞두고 정부에서 발표한 예방행동 수칙과 내부 지침을 문자와

출석을 포기하고 가정 예배를 선택했다.

서울 용산구 B교회 성도인 장모(74)씨는 "천식이 있어 평소에 기침을 많이 하는 편인데 신종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게 보여 교회에 가지 않기로 했다"면서 "감기에 걸렸다는 다른 성도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교계 행사들도 속속 취소됐다. 여의도순복음교회 대략청년국은 동계수련회를 열지 않기로 했고 세계성서화운동본부와 아시아칼빈학회는 각각 '성서화운동 전국 지도자대회'와 학술대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공동식사 등 단체 활동을 자제할 것' '단기선교 등 중국 여행을 자제할 것' 등을 삼았다.

각 교단은 "각 교회가 신종 코로나에 대해 바르게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안내한다"면서 "총회 산하 전국교회는 총회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신종 코로나가 지역사회에 퍼지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는 중국 우한에서 지난해 12월 첫 감염자가 나온 이후 31일 현재 전 세계 20개국으로 퍼진 상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8 일부터 신종 코로나에 대한 국가 공중보건위기 상태를 '주의' 단계에서 3단계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예배와 수련회 등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집회가 많은 교회 특성상 전염병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가짜뉴스 경계 특징인 혐오 멈춰야"

교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교회 대응지침 발표

전 세계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신종 코로나)에 대해 교계가 가짜뉴스를 경계하고 특징인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거둘 것을 독려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공동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목사)을 비롯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총회장 신수인) 예장 합신(총회장 문수석) 등 각 교단은 31일 총회 차원의 대응지침 안내문을 만들어 배포했다.

안내문에는 신종 코로나에 대한 정보와 함께 교회 예방 지침, 감염병에 대처하는 자세 등이 담겼다.

특히 교계 차원에서 "신종 코로나에 대한 공포를 부추기는 거짓 정보나 가짜뉴스를 경계

하자"면서 "바이러스 감염을 철저히 예방하고 경계하되 지나친 공포로 일상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처하자"고 했다. 또 "신종 코로나의 발병지인 우한, 나아가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혐오를 반대하며, 한국에 입국한 우한 교민이나 국내 확진 환자에 대한 편견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염 예방을 위한 교회별 대응 지침으로는 '교회당 눈에 잘 띄는 곳에 예방 수칙 포스터를 붙일 것' '악수 대신 목례나 손흔드는 것으로 인사할 것' '교회 천, 감염병에 대처하는 자세 등이 담겼다.

립교회였다.

기감이 미자립교회가 많은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감은 3년 이상 수련목(전임 전도사)으로 사역하거나 교회를 개척한 뒤 담임목회를 해야 목사안수 자격을 준다. 하지만 수련목으로 청빙받는 게 쉽지 않아 교회 개척을 선택하는 전도사들이 많다. 준비 안 된 개척이 미자립교회를 양산하는 셈이다.

오일령 선교국 총무는 3일 "준비된 개척을 돕기 위해 다양한 미자립교회 정책을 교단에서 만들고 있다"면서 "자립에 성공한 교회 사례를 90곳 더 발굴해 '100개 성공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자료집을 만들면서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필요한 사역을 한 교회들이 자립한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이 같은 정보를 공유해 자립 교회로 전환되는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기감은 2018년부터 소속 교회의 자립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섰다.

'다음세대 부흥운동' 전국조직 닷 올렸다

예장합동 8개 권역 위원장과 권역별 임원 선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김중준 목사)이 '다음세대 회복'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부흥운동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예장합동 총회 다음세대부흥운동본부(본부장 권순웅 목사)는 29일 경기도 화성 10층사로 주다산교회에서 전국조직 발대식을 열고 연초부터 본격화한 '회복과 부흥' 사역에 불을 댕겼다.

발대식에선 전국 8개 권역 위원장과 각 권역별 4명의 임원을 선임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다음세대 부흥 사역'을 전국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한 지역별 거점을 세운 것이다. 권순웅 본부장은 "성도가 '비전 메이커'가 되면 교회가 사회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며 "세대 단절의 시대를 맞은 지금 세대를 연결하는 최전선에 교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예장합동은 '영성회복'과 '다음세대 부흥'을 새해 역점사업으로 선포하며 2020년을 열었다.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교회 직분자들을 한데 모아 4박5일간 금식기도회를 열고

서울(중현교회)과 대전(대전중앙교회)에서 잇따라 교육부 흥론퍼런스를 개최하며 각 사업의 첫 단추를 끼웠다.

교단 내에서도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 바탕엔 교단을 이끌어가는 총회장의 리더십이 있다. 김중준 총회장은 운동본부 조직부터 행사 기획과 준비, 현장 특강 등 모든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며 집중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교육 관련 부서의 자체 행사에 그쳤던 겨울방학 프로그램이 교단적 주목을 받고 두 차례의 콘퍼런스에만 1800여명이 모일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중준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1970-80년대 놀랄만한 부흥의 열매를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었던 건 1950-60년대 펼쳐던 어린이 전도운동의 결과"라며 "침체된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 다음세대 부흥운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세대부흥운동본부가 내딛는 걸음이 주일학교 부흥으로 이어지고 한국교회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발대식을 통해 전국 조직망을 구축한 운동본부는 앞으로 주일학교 부흥사례 발굴 및 노하우 공유, 중등학교 대안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보급,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결혼 및 다산 장려 운동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권 본부장은 "운동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동력을 발휘해 나가도록 본부와 각 권역이 끊임없이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며 "교단을 넘어 한국교회 재도약의 발판이 되는 운동으로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강점 키우고 약점 줄이는 SWOT 전략 필요"

예장합동 '교단 리더그룹 초청미래전략 세미나'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김중준 목사)이 급변하는 환경에 발맞춰 새로운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30일 '교단 리더그룹 초청 미래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래전략개발위원회(위원장 박병호 목사) 주최로 서울 동작구 총신대(총장 이재서)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교단 전 현직 임원과 산하기관장, 부서장, 총신대 교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45%가 미자립...홀로서기 지원 강화

기감 선교국, 자립 노후담은 자료집 펴내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산하 6229개 교회 중 미자립교회가 2808개(45.0%)로 절반 가까운 교회가 재정 자립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자립교회 중에서도 57.6%인 1620개 교회는

1년 경상비가 15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기감은 연간 경상비 예산이 3500만원 이하인 교회를 미자립교회로 분류한다. 통계는 2018년 결산 자료로 만들어졌으며, 기감 선교국이 최근 펴낸 정책자료집 '교회 개척과 성장을 돕는 개척 레시피(사진)'에 실렸다.

자료집에는 자립교회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10개 교회 사례를 비롯해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노하우를 담았다.

기감은 다른 교단과 비교해 미자립교회가 많은 편이다. 미자립교회 비율이 가장 높은 호남성교연합회의 경우 27%로 교회 중 58.2%인 159개 교회가 미자립 상태다. 자립한 교회가 많고 분류되는 충청연회도 미자립률이 36.5%였다.

같은 기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는 9190개 교회 중 35.9%인 3300개가 미자

선교의 창 (139)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역병(疫病, plague)에 대한 이해와 자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ronavirus) 감염증, 통칭 무한폐렴(武漢肺炎)의 영향으로 온 세계가 초긴장을 하고 있다. 이 전염병은 2019년 12월 1일 중국 후베이성 무한시에서 발견된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다. 이는 전파 속도, 잠복기, 무증상 전염 등의 면에서 사스나 메르스보다 더 심각하다. 때마침 춘절 연휴가 끼어 중국 전역과 해외로도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있다. 이 역병이 지구촌 25개국으로 급속히 확산되자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31일을 기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현재 인구 1,100만 명의 무한시는 도시 기능 전체가 마비되고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는 앞 다투어 공방의 출입자들을 통제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언제 끝날 것인가? WHO의 긴급대응 프로그램 책임자 마이클 라이언 박사는 "아무도 모른다(Nobody know)"고 말했다. 큰일이다. 민심이 흉흉해지며 세계인들이 중국인을 넘어 동북아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때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더욱 조심하되 한편으로 고통

당하고 있는 중국인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1. 전염병과 인류 문명의 상관관계

일반적으로 전염병(plague)은 특정 시기에 대규모로 창궐

하여 지역이나 국가와 문명의 존립까지 뒤흔들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의학의 발전과 백신, 약물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전염병은 계속 발생한다. 이는 엄밀히 말해 인재(人災)라고 보아야 한다. 인간의 탐욕과 함께 역병도 진화해왔기 때문이다.

이들테면 환경파괴는 새로운 질병을 불렀다. 대표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라 말라리아가 다시 창궐하게 된 것이다. 동물의 전염병이 인간에게 전파되는 일도 흔해졌다. 바이러

스는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진화를 하면서 기존의 백신을 소용없게 만드는 일이 많아졌다. 항생제의 남용으로 내성균이 출현하고 병원감염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은 여전히 전염병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닐까? 전문가들의 조언에 의하면 "인류는 결코 병원성 미생물을 피할 수 없으며 지구 상에서 공생해야" 하는 운명에 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인류 최대의 역병이 있었던 유럽의 사례

위키백과(ko.wikipedia.org/wiki) 자료에 의하면 중세에 발생 한 흑사병(黑死病, Black Death)은 인류 역사에 기록된 최악의 범유행 사건 가운데 하나였다. 이 전염병은 유럽 지역에서 1346년 - 1353년 사이 절정에 달했다. 그때 흑사병으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7,500만-2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다. 유럽 인구의 30-60%가 죽은 것이다. 이 역병은 중

이 이 병을 몰고 다니는 자들로 여겨졌다. 따라서 저들은 집단폭력이나 심지어는 학살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 전염병은 유럽인들의 종교적인 사고에도 영향을 주었다.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로 해석하고 고행을 함으로써 죄를 씻어야 한다는 자들도 있었다.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이해

현재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지금까지 인간에게서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것이라 한다. 이 병의 원인으로 온라인에서는 박쥐, 코알라, 뱀 등을 산 채로 먹는 식습관에서 생겨났다고 한다. 특히 박쥐는 밤에도 잘 다니다서 "눈이 밝은 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쥐를 먹으면 눈이 좋아 진다"라는 잘못된 낭설 때문에 건강식으로 먹는다고 한다. 아무튼 발병 원인은 아직도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 분명한 것은 "기는 X위에 나는

4. 역병(疫病)에 대한 예방법

바이러스 침투로 발병한 모든 병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극대화시켜 몸속의 유전자 자체가 바이러스를 격퇴시키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한다. 건강할 때 건강관리를 잘 하라는 말이다. 병이 들면 이미 늦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충분한 수면이 요구된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면역의 비법이다. 둘째는 좋은 음식이다. 인터넷상의 팁에 의하면 식물로는 비타민 A가 많은 녹황색 채소와 고구마, 비타민 C가 많은 꿀 사과 대추 딸기 레몬 오렌지 등 신 과일을 매일 섭취하고, 비타민 E가 많은 견과류 콩나물 녹두나물 시금치 양배추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다. 셋째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다. 우리 인체는 70-90%가 수분이다. 하루에 8컵 이상의 물을 마시면 바이러스를 격퇴시키는 백혈구의 활동이 최상이 된다고 한다.

통계가 이렇할진대 여건 상 포함되지 않는 수까지 합산하면 얼마나 될까? 유언비어들이 난무하다. 아무튼 사태가 심각하다. 자고 나면 눈덩이처럼 환자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에 비해 의료인, 물자, 치료 환경 등은 너무나 열악하고 부족하다. 이때에 세계의 크리스천들이 나서야 한다. 사망의 그늘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독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저들이 우리 가족, 우리 민족이 아니라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성경의 도리를 거역하는 것이다.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이 진짜 친구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약 2:26).

맺음 말

세계 최대인 14억 인구의 중국에 커다란 시험이 닦였다. 시진핑 주석은 악마와의 전쟁이라고 비유했다. 눈에 안 보이는 전염병과의 싸움은 무한이라는 국지전에서 이제는 세계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몸보신만 하며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한 태도를 취한다. 중국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이들은 속으로 시원해할 것이다. 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타산을 떠나 저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공유해야 한다.

신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 대사는 2월 4일, 브리핑에서 "서로 이해하고 지지해주면 고맙겠다"고 밝혔다. 어려울 때 내민 고독한 손이다. 우리는 그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인류애이다. 또한 언젠가 우리 조국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이 닥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jrson007@hanmail.ne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다.

태풍이 불면 고개를 숙이며 조심하는 것이 지혜이다.

교회는 이때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아니 된다.

하여 지역이나 국가와 문명의 존립까지 뒤흔들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의학의 발전과 백신, 약물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전염병은 계속 발생한다. 이는 엄밀히 말해 인재(人災)라고 보아야 한다. 인간의 탐욕과 함께 역병도 진화해왔기 때문이다.

이들테면 환경파괴는 새로운 질병을 불렀다. 대표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라 말라리아가 다시 창궐하게 된 것이다. 동물의 전염병이 인간에게 전파되는 일도 흔해졌다. 바이러

아시아의 건조한 평원지대에서 시작되어 비단길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해 1343년경 크림반도에 닿았다. 거기서부터 화물선에 들끓던 검은 쥐들에 기생하던 동양 쥐벼룩을 기주로 하여 지중해 해운 망을 따라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14세기 흑사병은 사회 구조를 붕괴시킬 정도로 유럽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다. 당시에 사람들은 이 병이 왜 생기는지 몰랐다. 뜬소문에 의하면 거지, 한센병 환자, 유대인 등

X 있다"라는 속어처럼 인류 문명의 발전과 함께 질병들도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며 전염 경로는 다음과 같다. △기침과 재채기 △만지거나 악수하는 등 밀접한 접촉 △바이러스가 있는 물체나 표면을 만지고, 손을 씻지 않은 채 눈, 코, 입을 만지는 경우 △드물게 배설물에 의한 감염 등이다. 아무튼 태풍이 불 때는 고개를 숙이며 조심하는 것이 지혜이다.

넷째는 햇빛과 바람을 맞으며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다. 다섯째는 늘 손을 깨끗이 씻고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5. 고난당한 자들에 대한 크리스천들의 태도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월 4일 0시 현재 중국의 31개 성에서 신종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2만438명이며 사망자는 425명이라고 발표했다. 공식



세계한인언론협회 주관 제5회 신앙서적 독후감 공모 수상작

"나를 돌보는 시간" (저자 김유비 목사) -말씀으로 나를 봅니다

우수상 이다복 사모 (버지니아주 Calvary Hill Fellowship Church)



한 때는 문학소녀라는 이 야기를 들으며 긴 장편소설도 밤을 지새어가며 하룻밤 만에 읽어 내려가던 나였다.

어느 때부터였을까? 스마트폰의 스피드와 다양한 정보와 흥미 속에 익숙해지고 하루에 수백 번 열어보는 것이 습관이 되면서 서서히 책을 멀리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나는 나의 소중한 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는 엄마일 까를 생각해보게 되면서 부끄러웠다. 두려웠다. 양질의 책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독서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스마트 폰이 결코 줄 수 없는 넓이와 깊이의 영감을 주는 그 무언가가 사무치

게 그리웠다. 몇 권의 신앙서적을 둘러보면서 '나를 돌보는 시간'이라는 책 제목이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았다. 한 남자의 아내로, 며느리로, 목회자의 사모로, 한 어머니의 딸로, 세 자녀의 엄마로, 수십 명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 누군가의 친구로, 이웃으로 살아오면서 정말 열심히 뛰어왔다.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루 24시간을 늘 계획하고 목표를 정하여 빈틈없이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늘 누군가를 돌보아야 했다. 음식을 해서 먹이고, 베풀고, 나누어야 했다. 내 삶의 터전에 늘 누군가를

초대하였고 만남을 준비했다. 돌보는 시간이란 당연히 그 대상이 타인이라고 생각했던 내게 '나를 돌보는 시간'이라는 책은 그 제목 자체로 신선하게 의미를 부여하였고 나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이 책은 복잡하지 않고 군더더기가 없는 간결한 문장으로 내 믿음, 내 상처, 내 관계, 내 감정이라는 네 가지 영역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게 했다.

프롤로그에서 저자는 이렇게 처음 한 페이지를 열었다. "나는 책을 쓸 자격도 재능도 없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 책이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처 입은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덕분에

요." 그렇다. 저자 김유비 목사님께서 이 책을 쓰자 했던 이유... 예수님이 필요한 상처 입은 한사람... 그 사람이 나였다.

저자의 프롤로그는 신기하게도 내 마음 내 상황 그 자체였다. 마치 내가 이 책의 저자이고, 나의 이야기를 쓴 것처럼 현재의 내 모습이 참 많이 반영되었기에 내 안에 있는 거짓을 진실로 바로 잡고,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낯선 두려움을 찾아 해결하고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팽팽하게 긴장한 무대를 내려와 꼭 묶였던 허리띠를 풀고, 편안한 차림으로 갈아입은 느낌으로 향기 가득한 한 잔의 커피와 달콤한 케익 한 조각을 앞에 둔 듯한 여유가 있었다.

처음에는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았고 '이건 남의 이야기야, 나에게는 이런 약함과 상처는 없어...' 라고 동감되지 않고 조금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어느 한 페이지에서 내 마음이 녹아내리고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욕하는 게 이상한가요? 착한 사람은 더 이상합니다. 시편 자세히 읽어 보세요. 다른

사람 욕으로 꼭 찼어요. 참 신기하죠. 욕으로 시작한 기도가 찬양하는 기도로 끝나요."

모태신앙으로 늘 경건하게 모범생으로 크리스천답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짓된 강박관념 속에서 늘 마음을 꼭꼭 숨기며 살았다. 누군가의 오해를 받고 인터넷에 악플이 달리는 평가 앞에서 억울하고 힘들 때도 나는 짐뚱했다. 힘든 내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 누군가를 비방하고 험담하게 될까봐 죄책감이 들어 늘 나에게만 책임을 돌리며, 밤마다 침대에 누워 안방 천장에서 상영하는 실수 비디오투 무한 시청하는 것이 나였다. 사람마다 좋고 나쁨을 걸러내는 마음속 감정 필터에 대한 부분도 참 위로가 되었다.

"필터를 갈아야 하는데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 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나쁜 말을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귀찮더라도 뭔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너무 좁아지면 이것저것 다 걸립니다. 작은 말은 그냥 흘려보낼 정도로 넉넉한 크기면 좋습니다."

진실과 거짓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의 필터를 통해서 내 감정을 필터링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매일 아침에는 직장에서, 저녁에는

나의 자녀들에게 큐티 모임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어두운 세상 다니엘과 같이 준비된 사람을 길러 내는 목표를 향해 달리기 이전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 수 있었다.

나의 약함을 드러내기를 주저하고 왜곡된 자아상을 가졌기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평가하며 용납하지 못했는지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여전히 집안을 어지럽히는 아이들... 버리지 않고 쌓아두는 남편의 생활 습관, 내 뜻과 가르침에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느끼는 답답함... 이런 상황 속에서도 늘 내게 다그치지 아니하시고 인상을 찌푸리지도 아니하시고, 언성을 높이지 아니하시는 한 없이 따뜻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한다.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잠시 멈춰 서서 다른 누군가를 돌보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

"말씀으로 그 분을 봅니다. 말씀으로 나를 봅니다. 나를 보면 그 분이 보이고 그 분을 보면 내가 보여요."



히즈핑거 (His Finger)

"너는 아느냐"



지은이 김성국

하나님의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천성 가지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대답하셔야 합니다.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책에 대한 문의는 히즈핑거 이메일 hisfinger8386@gmail.com 또는 전화 (718)896-4040, (323)665-0009로 연락해 주세요.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2. 가정(家庭)사역에서 가정 선교로

가정을 히브리어로는 '바이트(bayith)'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오이키아(oikia)'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의 '바이트'는 외형적 집(House)을 의미하며, 또한 내적인 가정(Home)과 가족(Family)을 의미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집이라고 해도 초막이나 장막(천막)에 지나지 아니한 것은(창4:20, 25:27) 유랑, 유목민족의 특성이기도 하였으며, 이방인들에 반하여 장막에 거하는 것이 그들 종교에 충성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

여자로 지으셨으므로(마 19:4) 순결하여야 하며(말 2:15), 인간의 행복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창13:1). 그러므로 부부관계는 수평적이며 평등해야 합니다. 혈연관계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의 가정 창조의 연속으로 인류사회의 질서의 기초가 됩니다(출20:12).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불순종과 거역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거역으로 간주되어 사형에 처해집니다. 반면에 부모로 인하여 출생된 자녀라도 하나님의 예정된 창조행위의 산물이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삼상1:28). 따라서 부모는 하...

서 아버지에 의하여 그들의 역사를 가르쳐서 신앙과 민족정신을 키워줍니다(출13:8, 신4:9). 그러므로 가정교육은 자녀들의 성장과정에서 절대적 영향을 끼칩니다(딤후1:5). 예수께서도 그 같은 가정에서 탄생하셨고 양육되었습니다(눅2:48).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도 그 가정과 가계(족보)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마1:1-23, 눅3:23-28). '다윗의 자손 예수'라든지 '베냐민 지파 사울'이라든지 하는 표현은 모두 가정과 가계(족보)를 중요시하는 이스라엘인들의 관습의 하나입니다. 가정적 불행은 종교적 불신앙의 결과이며, 사회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한 믿음의 집단 성경에선 창조의 핵심으로 본질적으로 신성

란 의미가 더 강합니다. 성경에서의 가정이란 상하관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가정의 존립은 그들의 조상들을 통하여 계승된다는 관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누리는 안녕이나 번영은 물론 그들의 역사와 민족까지도 그들의 조상들에 의하여 베풀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아브라함의 존재는 절대적이며(요8:59), 야곱의 유언은 그 자손들이 누릴 장래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었으므로, 조상들로부터 계승되어오는 축복을 받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였습니다(창27장). 그들은 그들의 시조를 하나님이나 지으신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셨다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눅3:23-38).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이므로 본질적으로 신성합니다(창1:27). 남자와...

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계, 양육해야 하며(딤후 3:16-17), 함부로 노엽게 해서도 안 됩니다(엡6:4). 이스라엘의 역사는 가정과 가족과 씨족, 부족(지파) 등의 혈연적 집단으로 이어지며, 그들의 종교도 그들의 조상(가장)들로 대표되는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집(수 24:15)이란 가정을 중심으로 전제가족 또는 씨족을 의미하며, 레위 집(민17:8)은 레위지파를 의미하며, 종되었던 집(출13:3)이란 애굽 나라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레31:27)은 이스라엘 또는 유다의 민족 집단을 의미하며, 이는 곧 혈연관계 집단이며 종교적 집단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는 가정을 중심한 종교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유년기에 가정예절을 가르치며, 소년기에 들어서면...

부조리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벗어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가정의 성립을 축복하셨으며(요2:1-11), 시인들은 가정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시 27편, 128편). 남편의 애절한 사랑의 노래가 성경의 일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아가서). 예수께서도 형제들에게 불신을 당하셨으나, 가정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였습니다(요19:27). 그러므로 축복된 가정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데 있으므로, 육신적인 가정보다 영적, 신앙적인 가정이 앞섭니다(마 12:46-50). 가정선교적 차원에서, 가정이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집단으로 그 개념이 발전되어야 합니다(요14:3).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인/터/뷰 글로벌싱글즈커뮤니티 신승훈 목사, 이병만 장로 제2회 Date, Love, Marriage in Christ '만남의 장' 준비

삶의 분주함으로 인해 만남의 기회를 놓쳐 홀로 살아오고 있는 비혼자들은 우리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된다. 부모세대와 달리 가정을 이루게 되는 시기는 늦어지고 있다. 열심히 인생을 살아냈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도 쌓았지만 정작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기는 요원해 보인다. 온라인을 통해 만남을 갖기도 하지만 건강한 만남이 되지 못하기도 하고 그저 시간만 낭비하는 허탈감에 젖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 아름다운 만남을 이룰 수 있게 인생의 선배들이 뜻을 모았다. '글로벌싱글즈커뮤니티'는 건강한 만남을 통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해 11월 2일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첫 번째 만남의 시간을 가졌으며 오는 3월 중 같은 장소에서 두 번째 만남의 시간을 준비 중에 있다.

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형제들의 참여도가 낮은 것은 의문이 든다. 홍보가 잘 안된 것인지 아니면 그들 스스로 자신이 없는 것인지 가능하기 어렵다. 하지만 만남에 대한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은 현실 속에 DLMC 만남의 장은 건전하고 건강한 만남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만큼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으면 한다.' 글로벌싱글즈커뮤니티는 지속

신승훈 목사는 "첫 번째 만남의 시간을 통해 얻은 성과는 참가자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이라며 "단지 만남만을 가진 것이 아닌 전문 강사들의 강의를 통해 만남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거 같다. 참가자들의 피드백이 대체로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DLMC라는 타이틀로 만남의 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DLMC는 Date, Love, Marriage in Christ



왼쪽부터 신승훈 목사, 이병만 장로

첫 모임서 4쌍 탄생... 이번엔 35-55세 미혼남녀 23쌍 대상 △세미나 △1:1 대화 △상담 통해 행복한 가정만들기 도와

의 의미로 그리스도 안에서 데이트, 사랑, 결혼이다. 즉 성경적 결혼관과 올바른 가정관을 심어 주는 가운데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역이다. DLMC 만남의 장은 청춘 남녀들에게 건강한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토요일과 주일 모임을 갖게 되는데 △올바른 가정과 건강한 배우자상에 대한 세미나를 하며 △이틀간 한사람이 23명의 이성과 1:1 대화하는 시간과 5분 정도.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배우자를 만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지난 11월 첫 번째 모임에서 네쌍이 탄생했으며 10여명의 청년들이 친구가 되어 좋은 만남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작은 열매가 맺어진 것은 글로벌싱글즈커뮤니티의 검증시스템을 통해 만남의 장이 마련되어서다. 신승훈 목사는 "완전히 철저한 검증은 할 수 없지만 기본적인 것은 신청서를 받을 때 하게 된다"며 "신청자와 전화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신청서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된다. 그것은 만남의 장에 참가하고자하는 마음이 신실인으로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좋은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행사장소가 교회로 지정된 것에 대해 이병만 장로는 "자칫 잘못하면 목적이 변질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로는 "특정교회에서의 모임이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호텔을 빌려서 모임을 갖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건전한 만남의 장소로 교회만큼 좋은 곳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모임은 35세부터 55세까지의 미혼남녀 23쌍을 대상으로 열리게 된다. 주회 측은 특별히 형제들의 참여가 많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승훈 목사는 "자매들의 신청은 정원을 넘겼지만 형제들 참여도가 매우 낮은 편"이라며 "자매들의 프로필을 볼 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라 생각된다. 특별히 이번 신청자들의 직업군도 의사, 변호사, CPA, 약사 등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미모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병만 장로 역시 형제들의 참여도가 낮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신청서를 받으며 느끼는 것은 자매들은 결혼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다. 단지 기회를 놓쳤을 뿐

적인 싱글들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나가게 될 것이다. 이 장로는 "시작 단계라 신청자들의 연령대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 애로점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연령대 조정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좋은 만남의 열매가 맺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사역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임은 특정교회의 행사가 아닌 교단과 교회가 힘을 합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결혼적령기속에 있는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의 관심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신승훈 목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싱글라이프를 갖고 있는 남녀가 만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뜻대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으면 한다"며 "DLMC 만남의 장을 통해 맺어진 커플들을 대상으로 결혼교실을 통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문의: 레슬리조 권사(213-700-6541), 이병만 장로(678-538-7777) (박준호 기자)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New York, New Jersey, Florida, and other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 times.

영어로 보는 성경 (52)

English Bible

이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Philippians 4:4-7

4) 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it again: Rejoice! 5) Let your gentleness be evident to all. The Lord is near. 6)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 situation,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s to God. 7) And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NIV 2011)

WORD & IDIOM

* Rejoice: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 gentleness: 관대함, 온화함, 관용 * evident: 분명한, 명백한 * be anxious about ~ : ~을(를) 걱정하다 * situation: 상황 * petition: 탄원, 청원, 간구 * thanksgiving: 감사 * present: 내놓다, 제출하다, 말하다 * transcend: 초월하는 * guard: 지키다, 보호하다

GRAMMAR

4) 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it again: Rejoice!

기뻐하라 주안에서 항상 내가 다시 그것을 말할 것이다: 기뻐하라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그것을 말할 것이다: 기뻐하라!

* <Rejoice>는 <기뻐하다>의 뜻이지만 주어(You)가 생략된 명령문이므로 <기뻐하라>의 뜻이 된다.

5) Let your gentleness be evident to all. The Lord is near.

너의 관용이 분명하게 되도록 하라 모두에게 주가 가까이 있다 → 너의 관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되도록 하여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 <Let your gentleness be evident>는 5형식의 문장(주어+사역동사(let)+목적어+동사의 원형(be)+형용사)에서 주어(You)가 생략된 수동의 의미를 갖는 명령형 문장이다.

6)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에 대하여(무엇이든)

but in every situation, by prayer and petition,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 와 간구로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s to God.

감사와 함께 말하다 너희의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상황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함께 너희의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 <Do not ~>의 명령문과 <present ~>의 명령문이 접속사 (but)으로 연결되어 있다. <but>과 <present> 사이의 <in every situation,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는 모두 전치사구로 부사적 기능을 갖고 <present your requests to God>을 수식하고 있다.

7) And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고) 그것은 모든 이해를 초월한다,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지켜줄 것이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 그리고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줄 것이다.

*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절로 <will guard ~> 앞에서 문장의 주어인 하나님의 평화(the peace of God)가 어떤 것이지를 좀 더 수식해 주고 있다. 우리말로는 제한적 용법(the peace of God을 뒤에서 꾸미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취급하여 한 문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STUDY & THOUGH

■ 4절에서의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기쁨을 잃지 말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바울은 로마나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는 고난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 본을 보였다. 바울은 기쁨을 유지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권면한다. 관용의 자세를 가질 것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제시한다. 여기서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일반적인 대화와 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간구는 일정한 요구 조건을 들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감사'는 기도의 필수적 조건으로 기도 응답의 확신과 하나님께의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다.

■ Prayer must be the first spiritual reaction of those who believe in the living God.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왕상22:1-4)

왕상22장은 왕상의 마지막 장으로써 아합왕의 죽음으로 마치게 되는 장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3년 전 아합왕이 아람의 벤하닷을 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동맹을 맺으면서 시작됩니다. 그 때 벤하닷이 2가지를 약속했는데 1)길르앗 라못은 이스라엘 땅이니가 돌려주겠다고 했고 2)다메섹에 길을 만드는 공사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지냈는데 아무 소식이 없으니 결국 동맹은 깨지고 남유다와 연합해

아람과의 전쟁을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합왕은 결국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오늘의 교훈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간적으로 동맹을 맺는 것은 결국 다시 원수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화 여호와와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 보소서(왕상22:5)

본문은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먼저 하나님께 여쭙보는 습관이 있어야 함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합왕이 3년 전 아람왕과 전쟁할 때는 군사력이 매우 약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군사력이 더욱 강해졌고 거기가 남유다가 지 서로 힘을 합쳐서 싸우게 됐으니 아람은 한 방에 날려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때 유다의 여호사밧왕은 "먼저 여호와와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참

으로 지혜로운 왕입니다. 교회 리더일수록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애쓰고 늘 하나님께 물어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위험한 길에서는 보호해주시고 약할 때는 힘이 돼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니다.

수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왕상22:6)

본문은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부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아합왕의 밑에서 녹을 먹고 사는 선지자 400명이 모여서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전쟁에 나가면 이길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23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을 올바르게 전해야 하는데 평상시에 왕의 눈치를 보고 왕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살다 보니 항상 왕의 눈치를 보고 왕이 원하는 대로 예언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왕에게 아부하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영을 입에 넣어서 아합왕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성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훑고 그릇을 말함으로써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목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왕상22:7-8)

본문은 성도는 항상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만약 여호사밧왕이 영적 통찰력이 없었으면 400명의 선지자 말을 믿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400명의 선지자가 한결같이 승리한다고 예언을 해도 또 여호와께 물을 만한 다른 사람이 없냐고 물어봅니다. 이 예언이 가짜일 수 있다는 직감을 가진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한분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

시고 영적인 통찰력을 주셔서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거짓말하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과학이 발달하고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대가기 때문에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이 시대에 영적 통찰력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를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금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왕상22:9-12)

본문은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부하지 말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아부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과 함께 우리도 아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는 모두 거짓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철로 뿔을 만들었다"는 뜻은 시드기야가 아주 의미심장한 상징을 만들어 아합왕에게 아부하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 철은 가장 강력한 무기일 뿐만 아니라 막강한 힘을 상징합니다. 또한 뿔은 힘과

능력뿐만 아니라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왕이 철로 뿔을 만들어 아람사람을 다 물리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에 거짓말로 아부하고 있으면서도 여호와와 말씀이 이것으로 아람을 물리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끝까지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도 진리를 말하고 전해야 합니다.

토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왕상22:13-14)

본문은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진리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먼저 아합왕의 내시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내시는 전형적인 타협형의 스타일입니다. 대세가 아합왕에게 듣기 좋게 말하는 것으로 기울었으니 당신도 아합왕의 비유를 맞추는 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여호와께서 내

게 말씀하신대로 말한다"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좋은 게 좋은 거라 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이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서서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정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_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상처 입은 영혼, 말씀 통해 새롭게 나아가게 한다!

리더십저널, 프랭크 루이스 목사의 '깨어진 이들을 고치는 설교 이유' 게재

여기저기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처 입은 우리를 고치고 더 값지게 하신다. 따라서 목회자는 깨어진 이들을 고치는 설교를 통해 희망과 비전을 다가오는 새해에 선포해야 한다고, 테네시 주 내슈빌제일침례교회 담임목사 프랭크 루이스는 권면한다(Preaching that Restores).

과도하게 헌신적인 사람이 상처 입기 쉬울 때가 많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른다. 얼마 동안은 별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피로와 슬픔, 낙심이 아우성칠 것이다. 깨어진 사람들에게 설교한다는 것은 또한 이런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두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 첫 번째는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개척교회였는데, 거기서 10년을 섬겼다. 교인의 거의 절반이 우리 교회에 합류했을 때 이미 강력한 기독교 신앙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나머지 절반은 종교적 배경이 전혀 또는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은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을 때 이미 깨어지고 빈털터리가 된 사람들이었다. 자신들도 그걸 알고 있었다.

채드와 제니퍼 부부(가명)도 그랬다. 둘을 처음 만난 것은 어느 주일 아침이었다. 이십대 초반의 이 부부는 갓난아기를 안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다.

채드는 반바지에 야구모자 차림이었다. 제니퍼는 엄격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화장하지 않은 맨 얼굴에 생머리였다. 나는 금방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X세대"가 왔다는 걸 알아차렸다.

예배가 끝나갈 무렵 채드와 제니퍼는 폐회기도 하는 사이에 나가버렸다. 누구와도 말을 건네지 않았다. 놀랍게도 그 다음 주일에 배에도 그들은 예배에 참석했다. 나는 그들과 인사를 나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특권도 누렸다. 둘은 세례를 받았고, 성경공부 모임에서도 성도들과 사귀는 것 같았다.

몇 주 지난 어느 주일날 예배가 끝난 뒤에 채드가 내게 다가와 주중에 자기네를 만나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두 사람이 성경 읽는 것이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할 가정을 세우는 것 같은 질문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두 사람은 전혀 예상 밖의 질문을 해 나를 놀라게 했다. 채드와 제니퍼는 내 연구실에 앉아 이렇게 질문했다. "목사님은 가계 수지를 어떻게 맞추세요?" 나는 감

짜 놀랐다. 채드의 두 번째 질문은 이랬다.

"저는 매일 차고를 청소하고 최저 임금을 받고 있어요. 그 일도 일주일에 17시간밖에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채드와 제니퍼의 부모들은 전형적인 맞벌이 부부였다. 두 사람의 부모님들은 그들이 어릴 때 거

은 성도들에게 이런 저런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혼, 버림받음, 사랑하는 이의 죽음, 파산, 불행한 선택...

설교 컨퍼런스에서 릭 워렌 목사가 했던 말이 기억났다. "사람들은 다들 자신이 나쁜 처지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는지를 들려주어야 한다."

좋은 소식을 들을 때면 사람들이 수용적인 자세가 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복음의 좋은 소식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목회자는 바로 이곳 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야 한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맞는 프리사이즈 메시지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셨다. 그는 우물가 여인에게는 생수 이야기를 하셨다. 계산이 빠른 세리들에게는 회계 용어로 말씀하셨다. 깊은 밤에 찾아온 구도자에게는 상징적 이미지로 설명하셨다.

설교자로 부름 받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창의적인 설교를 해야 한다. 당신이 어떤 설교를 준비하고 있든, 당신은 성경의 거의 모든 페이지에서 출발, 두 번째 기회, 새 출발 같은 주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깨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와 같이 인내와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기다리는 분이심을 알려주어야 한다.

복음의 정수를 단순하게 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수님은 "첫째, 둘째, 셋째" 삼대지 설교자가 아니셨음을 명심하라. 주님은 보통 원 포인트 설교를 하셨다.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유머를 사용하시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실제적 설교, 은혜 전할 뿐만 아니라 교훈과 교정 역할도 결단 요청하는 설교가 전도...그러나 결단은 여정의 출발

의 곁에 없었다. 속제는 했는지,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까지 어떻게 지내는지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다.

가정경제나 장래계획, 직업, 심지어는 어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지조차 가족끼리 의논해본 적이 없었다. 두 사람은 행복을 찾아 여기저기를 기웃거렸지만 결국 상처만 남았다.

채드와 제니퍼 같은 X세대에게 대하여 전혀 몰랐지만 두 사람에게 안전망을 쳐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래서 나는 "X세대"를 위한 목회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온라인 채팅룸에서 깨어진 X세대에게 설교하고 목양하는 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한 마디를 발견했다. "X세대를 목양하고자 한다면, 그들에게 다시 부모가 되어주어야 한다."

이 젊은 세대에게 설교하려면 부모의 심정이 되어야 했다. 그들에게는 코치, 멘토, 가이드가 필요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나는 말

수빌이다. 나는 여기서도 동일한 것을 발견했다. 라스베이거스와는 한참 다른 이곳에서, 나는 우리 교단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간직한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도시에는 교단 출판사가 다섯, 종교기관이 세운 대학과 신학교도 여럿 있다. 한 마디로 바이블 벨트의 버클 부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곳에도 여전히 상처 입은 이들이 있다.

남편이 아닌 세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카렌 애기도 할 수 있고, 교도소에 간 아들을 둔 부모, 재혼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옛날 버릇을 못 고쳐서 아마도 조만간 또 이혼하게 될 것 같은 사업가, 우리 동네 길바닥에서 자는 노숙인 여자도 있다.

간통, 동성애, 약물중독, 포르노 중독, 도박, 기타 등등 온갖 종류의 상처 입은 영혼들이 여기 있다. 그리고 그런 영혼은 내온이 받거리를 장악한 도시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이번 주일 당신은

알기 쉬운 이미지를 보여주셨다. 주님은 메시지를 정중하게 맞추셨다. 그리고 늘 기록함과 섬기는 지도자의 성품을 생생하게 보여주셨다.

당신이 살고 있는 곳에 있는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라. 관념이 아니라 실재를, '여러분'이 아니라 '나'를,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하라. 성경이 그들에게 말하게 하라.

스트레스성 골절은 휴식을 취하고 뼈에 무리를 주는 체중을 줄이면 고칠 수 있다. 일단 골절이 치유되면, 뼈는 전보다 더 강해진다. 그러나 골절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을 바로잡지 않으면, 또 다시 부러질 것이다.

상처 입은 영혼을 위한 설교는 그들에게 은혜를 전해줄 뿐만 아니라 또한 교훈과 교정의 역할도 한다. 우리는 한때 결단을 요청하는 설교를 전도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다. 결단은 종착지가 아니다. 결단은 여정의 출발이다.

기도/칼럼

하늘에 투자하라



박한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1월에 새해를 두 번 맞이하는 은혜가 있었다. 구정 명절을 보내며 다시 한번 새해의 각오를 다진다. 연초가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새해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 있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한 해를 걸어가면서 새로운 희망을 품는다. 간절한 소원도 있다. 잘 될 것이라는 믿음도 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앞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밝은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1월을 보내며 벌써 각종 사건사고 소식이 놀라고 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라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곳 뉴스보다 나쁜 뉴스가 더 많다. 필리핀에서는 큰 화산이 폭발했다. 도시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중국에서는 폐렴 때문에 우한 도시를 봉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벌써 70여 명이 죽었다.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설날 밤에 60대 남성이 공원에서 분신했다. 여전히 세상은 복잡하고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어떻게 한 해를 살아야 할까? 위를 바라보며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만,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사모해야 한다. 비가 내려야 땅이 열매를 맺듯이, 아무리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셔야 사람이 받을 수 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나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이 없다. 불안한 미래에 나 자신을 맡길 수 없다. 내일을 자랑할 것도 없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누구도 무지갯빛 행복을 장담할 수 없다. 내일 일을 염려해보아야 소용이 없다. 나의 시대는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께 내 앞날을 맡겨야 한다.

새날을 꿈꾸며 미래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좋은 투자가 있다. 그것은 하늘에 투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다. 하늘에 투자해야 한다. 하늘에서는 좀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는 일이 없다. 도둑이 들어 훔쳐가지도 못한다. 기도야말로 확실히 하늘에 투자하는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골1:5).

bible66@gmail.com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최고의 동문을 자랑하는 Midwest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본교의 신학대학(원)은 34년 전통의 복음주의적 초교파 교육기관으로 각 교단을 대표하는 목회자, 선교사, 교수, 기업인, 의사 등 동문들이 현재 전세계 70여개국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음.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Midwest University 학위과정

국제항공대학(원) / 경영대학(원) / 리더십대학원

국방대학원 / 상담대학원 / 교육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 신학대학(원)

부설: MIRI - Midwest 국제연구소, 국제비즈니스창업센터

GU - 글로벌리더십연구소, 국가미래전략연구소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e@midwest.edu